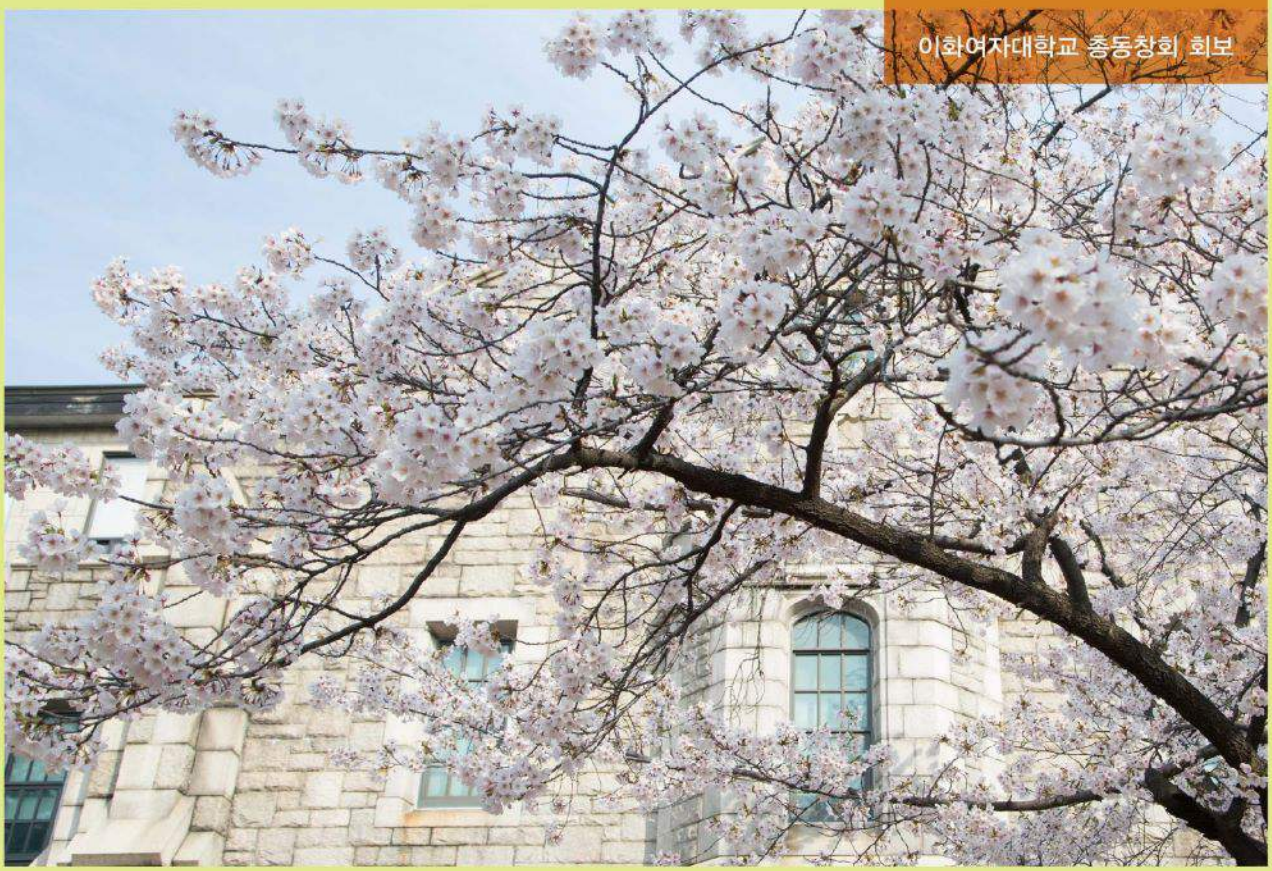
2020년 봄호 vol.158

이화동창

기획 특집 /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기관 보구녀관 복원
모교사용설명서 / 개교 이래 처음으로 모교 졸업 가운 교체하다
이화비즈 / 태경그룹 회장 김해련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 사랑의 힘,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로 보여 주세요

23만 이화 동창 여러분, 동창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에 힘입어 총동창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모교 발전을 돕고,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총동창회 사업에 큰 힘이 되며 장학 사업, 회보 제작, 모교 발전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화에서 뜨거운 젊은 시절을 보냈고, 평생 버팀목이 될 교육을 이화에서 받았습니다. 이화가 우리를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화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회비 납부를 통해 23만 이화 동창의 저력과 모교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총동창회는 이화 동창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황규호

동창들이 총동창회를 후원하는 방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화동창 연회비'는 《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나 총동창회 계좌를 통해 해마다 한 번씩 납부하면 됩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는 평생 한 번만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해마다 '이화동창 연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용지를 찾아 헤매는 불편이나, 은행에 이체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화동창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연회비는 면제됩니다.

■ **이화동창 평생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0만 원–2020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2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2020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3년 이후 졸업 동창)
평생 한 번 납부, 평생회비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 **이화동창 연회비 금액과 납부 방법**

3만 원–1년에 한 번 납부

■ **납부 방법**

지로 입금–《이화동창》에 동봉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김이화영문80)

■ **문의**

총동창회 사무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2020년 봄호 vol.158

이화 동창

표지사진
황규호(모교 교육학과 교수)
중강당의 왕벚꽃(2019)

02 **이화 동창과 함께하는 성경말씀**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03 **기획 특집**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기관 보구녀관 복원

08 **모교사용설명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모교 졸업 가운 교체하다

11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1세대 건축조명디자이너 고기영 동창

16 **축하합니다**
박재희 동창 외

18 **이화인 모임 탐방**
모교 은퇴 교수와 동창이 만든 '아시아교육봉사회'

22 **이화비즈**
태경그룹 회장 김해련 동창

27 **만나고 싶었습니다**
극단 해(解) 공동 대표 노지향 동창

32 **선교지에서 온 편지**
캄보디아 이규연 동창

34 **총동창회 소식**
대외협력처와 2020년도 업무 회의 외

36 **선교부 소식**
2020년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

38 **모교 소식**
23만 이화 동창 네트워크 우수한 역량 입증

42 **대학(원) 소식**
사범대학 외

45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외

51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62 **동창 근황**
문용자 동창 외

71 **동창이 펴낸 새 책**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외

03

08

11

22

27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무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9, 편집위원)
조성아(정외 89,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9, 편집위원)

발행 2020년 4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20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역대상 22장 16절)

본문의 배경(대상22:14-16):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왕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인구를 조사하고 이로 인해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는다. 그는 곧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예비한 이방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주께 기쁘게 바치는 예배를 드린 후 자신이 평생 사모해 온 주의 장막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게 된다. 그곳이 성전이요 번제단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허락받지 못한 성전 건축의 대업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며 격려하는 내용이다.

상고할 내용:(다윗이 솔로몬에게)

1. 자신이 평생 사모하던 성전을 위한 막대한 자원을 '환난 중에서' 준비했음을 상기시킨다.
2. 너는 '거기에 더하라' 고 (add) 지시한다.
3. 성전을 위해서 함께할 많은 능숙한 전문 장인들이 '준비되어 있다' 며 용기를 준다.
4. '일어나 일하라' 고 분부한다.
5.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며 용기를 주며 축복한다.

본문과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으셨다. 그리고 멸시와 천대의 공생애와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시는 환난을 통하여 성부로부터 '받으신' 그 소유 위에 당신의 생명을 '더하셨다'.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죽으시고 영생의 새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함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능력 있는 일꾼 삼으시며 '일어나 일하라' 고 명령하신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온 땅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어가신다.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하시며!

본문과 이화:

이화는 이러한 주님의 성전의 역사가 증거된 곳이다. 이화의 선진들이 환란과 핍박을 견디어 낸 예수에 대한 믿음과 헌신, 역사 속에서 용서받기 힘든 실수 후에 회개하고 얻게 된 귀한 겸손 등 남겨진 막대한 자산이 있다. 이화에는 각 분야에 수많은 인재와 영재들이 '성전을 지을 일꾼들' 로 준비되어 진치고 있다. 이제 이화의 역사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산 위에 '나의 것을 더하여' '일어나 일하자'. 거룩한 성전 이화를 건축하고 예수로 모퉁이돌 삼아 땅끝까지 이어나가자. 이화의 일꾼들에게는 절대권위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강현숙(교공 72) 목사/총동창회 선교부

정동 보구녀관 터에
남아 있는 표석

기획 특집 /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기관 보구녀관 복원

외형은 물론 '섬김과 나눔'이라는 설립 정신도 복원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의료기관 '보구녀관'이 이대서울병원에 복원되었습니다. 모교 제2 역사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세심한 고증과 연구를 거쳐 새롭게 복원된 보구녀관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복원 과정, 그리고 현 보구녀관의 면면을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이화 의료의 역사와 대한민국 여성 의료의 자취를 돌아봅니다.–편집자 주

복원된 보구녀관의 명패

낮은 담장을 지나 마사토가 깔린 마당에 들어서면 고즈넉한 한옥이 방문객을 반긴다. 지난해 5월 서울 마곡동에 정식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및 의과대학과 함께 우아하고 근사한 자태로 모습을 드러낸 한국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普救女館)이다.

1. 1887년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
2. 간호원장 이임식
3. 로제타 홀 가족과 박에스더 부부, 1895년 뉴욕에서 찍은 사진

이화학당의 한옥을 개조해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 시작

1887년 정동의 이화학당 구내에 설립된 보구녀관은 모교 의과대학과 이화의료원의 모태이다. 설립자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남성 출입이 잦은 병원에 오기를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 여성들만을 위한 병원 설립을 건의했고, 여의사 메타 하워드가 내한하면서 한옥을 개조해 치료를 시작한 것이 바로 보구녀관의 출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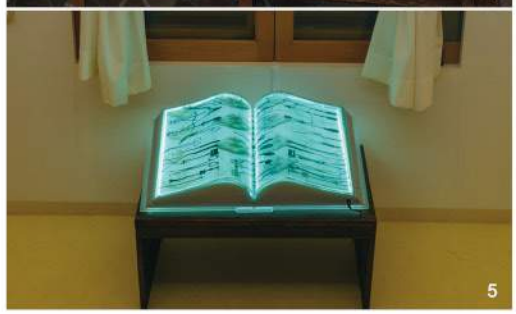
과로로 건강을 해쳐 고국으로 돌아간 하워드의 후임으로 로제타 셔우드 홀이 부임했다. 그녀는 1892년부터 보구녀관에서 여성 진료뿐 아니라 최초의 여성 의학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미국 유학을 통해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이화 동창 박에스더(또는 김에스더)는, 보구녀관에서 로제타 홀을 보조하며 의료계에 발을 들여놓았고, 이곳에서의 기초 의학 훈련을 통해 의학에 입문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일화이다. 귀국 후 박에스더는 로제타 홀과 함께 평양 광혜원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했으며, 보구녀관의 담당 의사 메리 커틀러의 안식년 기간(1901~1903년) 동안에는 이곳 보구녀관을

1. 중앙홀(구 진료실) 한쪽에 마련된 가상의 스크랜튼 책상

2.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의 방(구 세척소독실)
3. 역대 병원장(구 저장소)의 방에 꾸며놓은 가상의 로제타 책상
4. 영상 자료를 관람할 수 있는 라이팅 북(디목적 전시실에 설치)
5. 박에스더의 방에 설치된 가상의 의학서적 오픈 라이팅 북

맡아 환자를 진료했다. 한편 보구녀관에서는 한국 최초로 정규 간호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03년 마거릿 에드먼즈가 이곳에 간호원 양성소를 설립하여 한국인 최초의 간호사인 이그레이스, 김마르다를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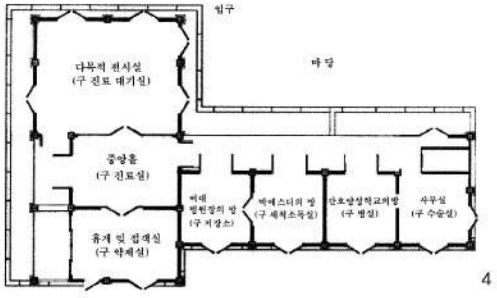
보구녀관은 1912년 당시 최대 규모의 현대식 부인병원인 동대문부인병원(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에 통합되기 전까지 정동에서 존속했으며, 이후 동대문부인병원은 1945년 모교에 행림원(杏林院, 의학과와 약학과의 전신)이 창설됨에 따라 모교 부속병원이 되었다. 1914년 이후 보구녀관 건물은 이화학당 부속건물로 사용되다가, 1921년 그 자리에 이화유치원(에드가 후퍼 기념유치원)이 건립되면서 완전히 철거되었고, 현재 그 터에는 표석만 남아 있다.



여성 의료와 여성 의료 교육의 생생한 역사를 담다

보구녀관 설립 130주년을 맞은 지난 2016년, 이화의료원에서는 보구녀관 복원준비사업팀이 꾸려졌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보구녀관의 외형뿐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라는 설립 정신과 의미도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1. 간호원 양성학교의 방(구 병실)
2. 역대 병원장의 방(구 저장소)
3. 휴게 및 접객실(구 약제실)
4. 보구녀관 내부 위치도



후 건축 복원을 위한 고증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8년에는 고증을 바탕으로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공간 계획이 마련되어 마침내 2019년 이대서울병원의 개원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특히 모교의 여성 의료와 여성 전문 의료 교육의 생생한 역사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이대서울병원과 의과대학 건물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대서울병원 건축본부의 최현영(건축 99) 건축사에 따르면, "보구녀관의 옛 건물이 사라지고 없기에 남겨진 선교사들의 문헌과 몇 장의 사진만을 가지고 고증 작업을 해야 했다"며 "복원사업팀에서는 처음부터 보구녀관의 공간을 여성 의료 역사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모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 권복규 교수의 자료 제공과 '보구녀관 초기 역사 고증 사업' 연구원 강문석 박사의 고증 연구가 복원 작업에 힘을 실어 주었다.

복원된 보구녀관의 전체 규모는 몸채 3.5×2칸(40.32㎡, 약 12.2평, 1칸은 5.76㎡), 날개채 4×1.5칸(34.56㎡, 약 10.4평)으로 몸채는 팔작지붕, 날개채는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몸채에는 대기실·진료실·약제실이, 날개

1. 중앙홀에서 바라본 날개채 쪽의 복도
2. 다목적 전시실(구 대기실) 설치 전경
3. 다목적 전시실 안에서 바라본 전경. 중앙홀과 휴게 및 접객실이 보인다

채에는 세척소독실·저장소·병실·수술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복원했으며, 각 실마다 다목적 전시실, 중앙홀, 휴게 및 접객실, 역대 병원장의 방, 박에스더의 방, 간호양성학교의 방 등 테마를 정해 꾸며 놓았다. 특히 당시 의료진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상의 의료장비와 기구, 책상과 서적뿐만 아니라 라이팅 북 등의 영상 자료도 함께 전시해 여성 의료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신경썼다. 내부 공간의 기획과 설치 작업은 조형대 서양화과의 강애란(서양 83, 전 조형대학장) 교수가 전적으로 맡아 진행했다.

보구녀관이 우리나라 여성 의학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위대하다. 이곳 보구녀관에 와서 그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에 새기는 기회를 가져보기를 권한다.

* 관람시간 : 평일 09:00~17:00

* 관람비 : 무료(1층 안내데스크에 문의)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사진·강애란(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숭고-헤테로토피아의 공간:보구녀관을 복원하다』/ 이화역사관 / 이화의료원 제공

이화 그린 색상의 새 학위복, 육각 모양 학사모 선보여

이화 그린 색상으로 변경된 학사 학위복의 색상이 돋보인다(가운데). 양 옆은 검정색 가운의 석·박사 학위복

모교는 1886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검정 졸업 가운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였다. 새 학위복은 케이프(소매가 없는 망토식의 겉옷)와 재킷이 합쳐진 형태로 학교의 상징색인 '이화 그린' 색상의 가운이다. 가운 위에 학교 시그니처(교표와 영문 이화 로고의 조합)가 새겨진 벨벳 소재의 'V'자 후드와 벨벳 목 칼라를 착용하여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학사모도 기존의 사각모에서 육각모로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새 학위복이 첫 선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020년 2월 전기 졸업식은 코로나19로 인해 8월로 연기되었다. 한 번뿐인 졸업식을 못하게 된 졸업 예정자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새 학위복을 대여하여 개인적으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려 했으나, 그마저 바이러스의 확산을 우려한 교육부의 요청으로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후기를 합쳐

전례없이 대규모로 치러질 8월의 졸업식에 등장을 앞둔 모교의 새 졸업 가운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8년부터 학위복 디자인 변경하기 위해 의견 수렴

모교는 2018년부터 학위복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의 상징과 정체성을 반영한 이화다운 새로운 학위복을 만들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 왔고, 당시 타 대학에서도 학교의 상징을 반영하여 가운을 바꾸는 분위기였다. 2017년 김혜숙 총장 취임 이후 새롭게 선포된 이화 그린 색상의 'TOGETHER TOMORROW EWHA' 슬로건 아래, 미래를 향해 함께 도전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반영한 학위복 제작의 임무가 모교 패션디자인연구소에게 맡겨졌다.

연구소는 2018년 5월부터 선호도 조사를 위해 '입고 찍GO'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며칠 동안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열 가지의 새로운 학위복 디자인을 종류별로 걸어 놓고 한옆에는 스타일링 할 옷도 갖추어 학생들이 입어보고, 교정에서 걸어보도록 퍼레이드를 기획하였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1안 기존 가운형, 2안 케이프형, 3안 재킷과 케이프 절충형을 제시하고 전체 실루엣과 컬러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절충형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학위복 디자인 변경을 주도한 모교 패션디자인연구소 소장 박선희(패션디자인학전공, 장미 88) 교수는 "학생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선호도 조사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면서, "타 대학과 차별되면서 이화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고심했는데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일을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박사(오른쪽 첫 번째)는 금색 테두리 후드의 뒷면 길이가 석사 후드보다 길다

이화 그린 색상의 케이프 형태, 파워숄더와 'V'자 후드

파격적으로 변신한 졸업 가운을 찬찬히 살펴보자. 우선 기

존의 검정색 가운에서 학교의 상징색인 일명 '이화 그린'으로 색상 변화가 뚜렷이 차별된다. 케이프 스타일의 가운은 재킷 절충형으로, 어깨 라인이 딱 서는 파워 숄더를 적용했다. 절도 있고 미래 지향적으로 보이도록 어깨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학위복은 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 패턴이 숨어 있다. 가운의 뒷면은 오픈형의 'X'자 형태로 앞면의 지퍼만 올리면 사이즈가 몸에 맞춰 자동 조절되는 디테일로 누가 입어도 맞춤복이다.

그 위에 사진 찍을 때 상반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검정 바탕과 이화 그린 색상의 'V'자 후드를 걸친다. 밋밋할 수 있는 후드에 교표와 영문 학교명을 새긴 이화 시그니처를 선명하게 새겨 포인트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역시 그린 색상의 탈부착식 벨벳 목 칼라를 입으면 리본 블라우스를 안에 입을 필요 없이 완벽한 형태가 된다.

학위별로 석사와 박사는 단과대학별로 구분되는 후드 색상이 강렬하여 가운을 그린색이 아닌 검정으로 통일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석사는 검은 색상의 가운에 밑단 한 줄 벨벳 라인이고, 박사는 양옆에 세 줄 벨벳 라인으로 차별을 두었다. 박사는 금색 테두리 후드의 뒷면 길이가 석사 후드보다 길게 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각모 대신 검정색 벨벳 소재의 육각 모양으로 변화를 주었다. 사선으로 비스듬히 쓰니 더욱 멋스럽게 보인다. 학사모의 술은 예전같이 단과대학별 다른 색상이 적용되는데, 벨크로가 있어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내부에 도톰한 스펀지를 장착하여 부드럽게 하였다. 석사는 검정색의 술을, 박사는 금색의 술로 차별을 두었다.

SNS에서 이화여대의 새로운 학위복을 검색하면 더욱 상세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어깨에서 내려오는 팔 부분이 날개처럼 벌어져 펄럭이면서 가운이 날리는 뒷모습이 더욱 멋져 보인다. 옷이 날개라고 했던가. 박선희 교수는 "당당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담은 진화된 형태의 학위복을 만들고자 하였다"고 의미를 설명하였다.

졸업을 앞둔 후배들이여 "이화의 날개를 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당당하게 승리하시라!"

벨벳 'V'자 후드에 이화 시그니처를 새겨 포인트를 주었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사진·이대 홍보실 제공

1세대 건축조명디자이너 고기영 동창

빛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빛의 마술사

1세대 건축조명디자이너 고기영(장미 87) 동창은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에서 한국인 1호로 건축조명디자인 석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지금까지 30여 년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디자인대학원 공간디자인전공 겸임교수). 동시에 1998년도에 설립하여 올해로 22년째인 건축조명회사 비츠로 앤파트너스(Bitzro and Partners)를 이끌고 있는 업계의 선두주자이다. 빛의 마술사, 빛으로 말하는 조명디자이너 등 고기영 동창을 지칭하는 수식어도 화려하다.

경복궁과 창덕궁의 조명 마스터플랜(2012), 2012여수엑스포·광안대교·부산항대교 등 공공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상업 공간으로는 하남·부천에 이어 수원 스타필드를 설계 중이며, 타워팰리스·광화문 D타워·판교 엔씨소프트 등 300여 개의 수많은 프로젝트가 고 동창의 손을 거쳤다.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 알바루 시자 등과 협업하였고, 해외로는 두바이 베이게이트 타워와 앙골라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남겼다. 최근에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소문역사공원 조명 프로젝트를 마치고 남양성모성지 작업 마무리로 바쁜 고 동창을 논현동 사무실에서 만나 보았다.

작은 주택부터 도시의 마스터플랜까지

여느 사무실과 분위기가 다르다. 천장에 조명이 아무것도 달려 있지 않은데, 어디선가 은은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건축가의 서재를 보는 듯 수많은 디자인 도록이 빼곡한 책장 너머로 스무 명 정도의 젊은이가 각자의 빛을 품고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빛은 위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있어요. 그런 고정 관념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빛은 바닥에, 벽에, 천장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명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도 공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축조명디자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다루는 영역일까 궁금하다.

"빛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작은 주택부터 넓게는 도시의 마스터플랜까지, 경

국립중앙박물관의 야경

경복궁 경회루의 조명으로 단청 빛이 돋보인다

관조명·조경조명·실내조명 전체를 아우르지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전세계 영업소 1만 5,000개의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디자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삼성 래미안 등 아파트의 라이팅 매뉴얼과 같은 디자인 리서치와 기술 지원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비츠로의 조명관을 오롯이 드러낸 제주도 나인브릿지(1999) 리조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비츠로 1호 프로젝트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기존의 외관 조명은 가로등처럼 위에서 환하게 비추는데 그것이 자연 경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상의 등기구를 없애고 바닥에서부터 나무와 건물에 조명을 직접 비추는 방식으로 변화시켰죠. 조경이 갖고 있는 형태가 밤에 자연스럽게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연과 건축물이 조명을 통해서 어둠과 빛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역할입니다."

고 동창의 조명 철학은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문화재청 주최로 매년 봄·가을에 열리는 '창덕궁 달빛기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은은한 달빛 속에서 아름다운 조명으로 밝힌 고궁을 청사초롱을 들고 거닐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야경으로 손꼽히는 이 작업으로 '서울시 좋은빛 상'(2012, 전등사용 125주년 기념)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1998) 프로젝트는 설계에만 4년이 걸린 대형 작업으로 비츠로의 이름을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해외의 유수한 업체들과 공모로 경쟁해 최종적으로 당선이 된 곳은 바로 비츠로가 함께 참여한 한국의 건축회사였다. 당시 조명디자이너라는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던 시기에 비츠로가 조명 파트로 동등하게 참여한 것은 파격적이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에 설치한 미디어 파사드(2008)이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 전체를 LED 미디어 캔버스로 만들어 줄리언 오피의 작품 '걸어가는 사람들' 영상을 실현하였다. 덕분에 건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서울시의 명소가 되었고, 이런 명성을 바탕으로 롯데 월드타워 미디어 작업 때는 이탈리아의 거장 알렉산더 멘디니가 스케치를 주어 영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프로젝트가 다양하고 많지요? 주변의 상황들, 공간의 내용과 성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오피스, 호텔, 공원 등 여러 곳을 섭렵하며 버라이어티하게 살고 있어요."

서울스퀘어 '줄리언 오피의 걸어가는 사람들' 영상

전곡선사박물관 뱀의 모습 형상화 장면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지도교수였던 고 김길홍(장식미술과, 1940~2002) 교수님의 상상 훈련 덕분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교수가 되어야겠다' 라고 꿈을 갖게 해주셨어요. 처음엔 강의 스타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두루뭉술하게 과제를 내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굉장히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고정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유형의 것을 무형화시키고, 무형의 것을 유형화시키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상상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지요.

유학 가서 공부할 때 상상하는 훈련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빛이라는 재료가 모든 것을 다 존재하게 하지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밤에는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끌어내서 새로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상상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시켜 주셨죠. 김 교수님이 뉴욕에 여행 와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자네 잘 하고 있나" 하며 격려도 해주시고, "사물을 볼 때 한 가지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물이 갖고 있는 색이 동일한 색이 아니다. 너의 눈을 믿어라, 눈은 자연광 빛에 의해서 계속 바뀌니 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야 한다"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고2 때까지 피아노전공을 했는데 창의적인 작업이 좋아서 미술로 진로를 바꿨어요. 그런데 나중에 라이팅디자인을 전공하고 보니 음악과 빛이 똑같이 형태가 없는 재료더군요. 음악은 원래 형태가 없이 누가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데, 빛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공간에 다양하고 편안한 빛을 마치 음악처럼 표현하는 것이 조명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했던 것이 빛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부 4학년, 대학원 때 반드시 현장실습을 나가야 했어요. 당시에는 현장실습이 일반적이지 않은 때였는데, 그만큼 이화가 깨어 있었던 거죠. 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라 기능을 갖는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김 교수님의 철학이셨어요. 디자인적인 이론과 사회에서 발생되는 실제적인 상황이 같이 맞

물려 가야 하기 때문에 실습이 중요합니다.

방학 동안 설계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는데 도면을 주면서 사무실이건 복도건 전등 자리를 무조건 1미터 간격으로 동그라미를 치라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찾아보니 파슨스에 조명디자인 과정이 1984년에 생겼어요. 1989년에 유학을 갔으니 비교적 초창기(5기)에 공부를 한 셈이죠.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조명 정규 과정으로 공부한 거죠. 맨땅에 헤딩하더라도 남이 하지 않은 것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간디자인학과 조명전공 강의를 하고 계시지요.

"1992년 귀국하고 모교에서 바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모교에서 조명디자인 과목의 수업을 만들어 주셨어요. 국내에서는 최초였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조명전공이 있는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배를 만들어 내야 했고, 라이팅디자이너를 배출해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남자는 들으면 안 되냐고 요청할 정도이지요.(웃음) 아직까지도 국내 조명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 토양이 빈약하고 전문 교육 과정 부족한 현실인데, 이미 이화에서는 30년 전에 최초이자 유일하게 조명전공과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화는 그렇게 항상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라이팅디자인은 새로운 분야, 뜨는 분야이고 굉장히 아트적인 감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화의 특성화된 모습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라며 이제까지 비츠로를 거쳐간 이화인이 스무 명이고, 지금도 비츠로의 여성 직원의 반은 이화 동창이라고 소개한다.

비교적 일찍 조명디자인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설계 사무실에서 실무도 병행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전에 일했던 사업체에서 너무 재밌고 좋은 작업 의뢰가 들어와서 고민하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미국 유학 당시 건축가가 설계를 하면 라이팅디자이너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 분야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근 LED기술의 발달로 표현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LED라고 하는 재료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건축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되었습니다. 전기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전자시대)로 넘어가 패러다임이 전환되다 보니 조명디자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단순히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디지털화된 상황이 된 것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함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기술과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개척자로서 힘든 점도 많으셨지요?

"20대 때 현장에 가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젊은 여자가 왔다는 소리를 들으며 일했어요. 회의하고

결정된 사항이 다음날 가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알고 보니 남자들끼리 미팅을 끝내고 술자리나 사우나 가서 다 바꿔 놓은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회의에 가면 여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일찍 주목을 받아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각오가 생겼어요. 빛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프로젝트가 크든 작든 간에 어쨌든 좋은 결과물을 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한번 보여 주면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테스팅을 다 야간에 하니, 겨울은 밤이 길어서 괜찮은데 여름은 낮이 길어 괴로워요. 서너 시간 자고 일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언제나 피로와 싸우는 형편이죠. 공무원과 싸움도 잘해야 돼요.(웃음) 하지만 다 세팅하고 불 켜면 느끼는 쾌감, 결과물이 좋으면 다 사라집니다.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이 일은 사회·정치·문화 모든 분야와 연동되는 영향을 갖는 것이라 너무 재미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의뢰인을 만난 좋은 기억도 많아요. 우리와 일하지 않은 건축가는 가짜 건축가나 간첩이다 할 정도로 많은 의뢰인과 작업을 했어요. 70~80대에서 20~30대의 젊은 건축가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것이 저의 자산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이뤘는데 앞으로의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싶으신지요.

"1세대 조명디자이너로서 좋은 문화적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명디자인이 왜 중요한가, 조명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는가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조명디자이너에 대한 존중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1세대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1세대는 씨를 뿌려 놓은 역할. 다음 후배들은 딛고 올라서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겠죠. 10년 투자하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조명디자인이 영역을 확대해서 공간디자인을 끌고 갈 수 있는 위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김길홍 교수님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만큼 저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책임감입니다. 교육의 힘이 중요하지요."

이화 동창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좋은 빛 환경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감성에 충실할 수 있는 빛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좋은 빛 환경으로 조절해 볼 것을 권합니다. 자연광을 보면 똑같은 빛은 단 한 순간도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 바뀌지요 빛의 양, 빛의 색, 그에 따라서 나의 리듬도 달라집니다. 노을이 떨어지면서 밤이 올 때의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집에서도 책을 볼 때, 대화를 할 때, 상황이 다 다르죠. 나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빛 환경에서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색 온도만 바꿔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코로나 블루'로 우울한 집안에 빛 하나 밝혀두고 싶다. 청사초롱 들고 창덕궁 달빛기행 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돌아오길 바라며.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박재희(무용 72) 동창

국가무형문화재 92호 한영숙류 태평무 예능보유자 인정

청주대 명예교수 박재희 동창이 국가무형문화재 92호 한영숙류 태평무 예능보유자로 인정받게 되어, 1월 15일(수) 충북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인정 기념 시연회를 열고 인정 기념패를 수여받았다. 박 동창은 고 한영숙 선생으로부터 1973년 태평무를 전수받아 50년 가까이 전승과 보급에 힘써 왔으며, 2000년에는 벽파춤연구회를 결성해 한성준-한영숙류의 춤을 중심으로 전승하고 전국에 보급했다.

남정호(무용 75) 동창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선임**

남정호 동창이 2월 17일(월)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2023년 2월 16일까지 3년이다. 남 동창은 부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로 지내면서 현대무용단 줌(Zoom)을 창단하였고, 199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이 설립되면서 창작과 교수로 초빙돼 2018년 정년퇴임까지 후학 양성에 힘썼다.

유영숙(화학 77) 동창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취임**

1월 13일(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유영숙 동창이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 동창은 199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센터장, 본부장, 연구부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제14대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2019년부터 한국바이오연료포럼(KBF)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남성희(커미부 78) 동창 **제19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취임**

1월 21일(화)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135개 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9대 신임 회장에 남성희 동창이 선출됐다. 남 동창은 2002년부터 대구보건대 총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1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다.

정혜란(법학 78) 동창 **창원시 부시장 임용**

정혜란 동창이 창원시 제2부시장에 임용되었다. 정 동창은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

부모회 마창진지회장, 마산YMCA 창원시평화인권센터 운영위원장 등 지역 사회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수형(정외 83) 동창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사장 취임

이수형 동창이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제9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이 동창은 1996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제1대 총장을 시작으로 문화산업지원센터 이사, 대한YWCA연합회 인력개발위원회 상임위원, 경기도지역혁신위원회 위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미래원 원장, 한국문화산업포럼 이사, 대한YWCA연합회 실행위원, 한국여성재단 이사, 청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유경하(의학 84)·임수미(의학 93) 동창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대서울병원장 임명

유경하 동창이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 유 동창은 1996년부터 이화여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대목동병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혈액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대서울병원장에 임명된 임수미 동창은 역대 최연소 병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진 왼쪽부터 유경하·임수미 동창.

정혜원(사회 86) 동창 대전YWCA 신임회장 선출

대전YWCA 신임 회장에 정혜원 동창이 선출됐다. 정 동창은 한국가족복지실천학회 이사,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운영이사,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이사, 대전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회 위원, 대전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취임식은 2월 12일(수) 대전YWCA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윤석희(법학 87) 동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취임

1월 14일(화) 서울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 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변호사회 제30차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윤석희 동창은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예비위원과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양성평등심의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유임(정외 89) 동창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선임

김유임 동창이 1월 20일(월)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되었다. 김 동창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분과 위원, 경기도의회 부의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복음의 불모지 캄보디아에 '이화스링학교' 건립

선교사 파송에서 기독교 대학 설립으로 비전 전환

아시아교육봉사회(Volunteers for Educational Services in Asia, 이하 VESA)는 모교 설립자인 스크랜튼 여사의 헌신을 이어받아 지구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체이다. VESA의 전신은 1999년 모교 기독교 교수들의 모임으로 시작된 '이화선교사후원회'이다. 2000년 모교 대학교회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대학 교수로 파송하는 임신자(특교 95)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을 첫 사업으로, 2001년 이철희(간호 88) 선교사, 2004년 김유선(전 대학교회 전도사, 신대원 04) 선교사, 2005년 김길현(전 약학대 교수)·원경연(무용 81) 부부 선교사의 파송을 지원하며 캄보디아에 복음이 뿌리내리기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다.

캄보디아는 1975~1979년 이어진 내전과 크메르루주 대학살(킬링필드)로 교육 시설은 물론이고 인재를 양성할 지식인조차 완전히 사라진 곳. 게다가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로 복음화가 절실한 선교지였다.

제1대(1999~2009년) 회장 이은화(교육 59,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동창, 제2대(2009~2012년)

2009년 설립된 이화스링 유초등학교 전경. 훌륭한 설계와 건축으로 캄보디아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회장 강순자(과교 66, 전 사범대학장, 과학교육과 명예교수) 동창, 제3대(2012~2019년) 회장 신승애(물리 63, 물리학과 명예교수) 동창에 이어, 제4대 회장을 맡고 있는 전길자(화학 74, 전 학생처장, 화학과 명예교수) 동창은 VESA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회고한다. "2004년 김길현 교수님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것을 계기로 우리 사역의 방향도 선교사 파송을 넘어 선교 현지에 모교와 같은 기독교 대학 설립으로 전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학원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2005년 사단법인 VESA를 만들게 되었지요."

그 후 학교 부지 구입과 설계 인·허가 등의 과정을 거쳐 대학 설립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교수들이 1억 원씩 대부를 받아 마련한 총 8억 원의 자금으로 프놈펜에서 50km 떨어진 시골 지역 깜퐁수프 스렁마을에 89만 1,000㎡(약 27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2009년 이화스렁 유초등학교, 2015년 이화스렁 중학교, 2018년 이화스렁 고등학교를 설립·개교했으며, 행정동과 보건진료소도 지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후원자들과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화스렁학교를 방문해 10주년 기념식과 감사예배를 드렸다. 또한 11월에는 모교 다락방전도협회 예배실에서 VESA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구할 때마다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의 힘"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이화스렁학교 재학생은 415명이다. 현지에는 총괄 교장인 김유선 선교사와 보건진료소장 이철희 선교사 등 4명의 한국인 선교사를 비롯해 39명의 현지인 교사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며 헌신하고 있다.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VESA는 다락방전도협회를 주 모임 장소로 삼아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화요기도회와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5시 운영위원회로 모인다. 이처럼 매주 매달 모이는 덕에 주요 안건들이 그때그때 신속히 결정되고 실천에 옮겨지는데, 그것이 바로 VESA의 힘이며 기도의 열매이다.

학교를 세울 정도라면 VESA의 후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전길자 동창은 "2019년 11월 설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문집 『캄보디아에 심긴 겨자씨 한 알』이라는 책자를 내며 후원자들을 정리해 보니 1,000여 명의 개인 후원자와 100곳이 넘는 단체가 후원에 참여해 준 것을 알게 되었다"며 "얼굴도 알지 못하는 후원자들이 매월 신실하게 기도와 물질로 참여해 준 것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넘쳤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큰 금액을 아낌없이 준 후원자들도 있었다. 특히 2009년 초등학교 건물을 지을 때, 학생들을 미래의 세계 시민으로 키우려는 비전을 가

VESA의 정기수련회 단체사진(위)
VESA 전길자 회장(오른쪽)과 총동창회 성혜옥 선교부장(아래)

진 이화부속초등학교 김정효(초등교육과 교수) 당시 교장 및 학부모들의 후원을 통해 총 6억 원의 공사비가 모금된 일도 있었고, 중·고등학교 건축에 필요한 12억 원 예산안을 놓고 기도할 때 2018년 당시 회장을 맡았던 신승애 동창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정리해 2억 원을 후원하여 건축의 주춧돌을 놓아준 일, 또 건축에 매진하다 보니 선교사에게 보낼 후원금이 없을 때 희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 이름으로 미국에서 이화여고 출신 후원자가 15만 달러의 후원금을 보내준 일은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잊지 못할 기도응답으로 기억되고 있다.

전 동창은 "이화스렁은 수많은 VESA 후원자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정성으로 지어진 학교"라며 "당시 훌륭하게 지어진 초등학교 건물 덕분에 캄보디아 사회로부터 '이곳은 다른 나라에서 지은 학교와는 차별화된 곳'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지요"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매주 채플과 성경 강의를 통한 기독교 교육의 열매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입 자격 시험인 국가고시를 치를 때 나타났다. 시험을 보러 간 아이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나 부정 행위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에서도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고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현지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났던 것. 이처럼 이화스렁 학교가 캄보디아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낼 때 VESA의 후원자들은 힘이 난다.

'학원 복음화의 릴레이'가 이루어지는 꿈

2018년 이화스렁 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던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 동창은 "많은 후원자들이 직접 그 학교를 오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를 보고 자신이 후원한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며 당시의 감동을 이렇게 전했다. "채플실, 교실, 기숙사마다 후원자 이름과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우리도 모교 '파이퍼홀'(본관)을 지을 때 어떤 기도와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 모르는 채 학교를 다녔잖아요. 이화스렁 학생들도 지금은 깨닫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고 어딘가에 또 다른 학교를 세울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에 대해 전 동창은 '학원 복음화의 릴레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에는 '우리가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혜택을 받았듯이 이화스렁 학생도 이

매주 화요일 아침 8시에 열리는 VESA 화요기도모임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모이는 VESA 운영위원회 모습

화 공동체를 통해 혜택을 받았으니 100년 후에는 그들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라' 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올해 VESA가 추진 중인 사업은 2021년 11월 개교 예정인 과학기술대학(대학 명은 미정) 설립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대학만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다. 크리스천 리더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될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이화스렁은 2021년 처음으로 30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한다. 대학 설립도 그것에 맞춰져 있다. 대학이 설립되면 한 캠퍼스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의 인프라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VESA의 대학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교과 과정 기획이나 교수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행히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20년간 공업경영학과를 운영하며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새롭게 사역지를 찾던 중에, VESA에 관심을 표해 주었다. 또한 대학교의 학사·행정·시설 관리 분야에서 헌신할 자원봉사자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헌신할 장기 선교사를 간절히 찾고 있다.

또 올해에는 단기로 파견된 선교사나 교사를 위한 선교관도 지을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전 동창은 "이 또한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믿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전 동창은 『캄보디아에 심긴 겨자씨 한 알』의 내용을 인용하며 "교육이 나라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음을 경험한 모교의 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이 20여 년째 문화와 종교, 가치관이 다른 캄보디아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기 위해 교육과 의료 선교로 봉사하고 있다"며 "19세기 말 어둠의 땅 한국에 이화를 세우시고 한 줄기 빛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21세기 초 가난과 혼란의 땅 캄보디아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맺었다.

VESA는 오늘도 이화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선배들의 헌신과 인내를 본받아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캄보디아 땅에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사진·아시아교육봉사회 제공

이화스렁 중고등학교 건물. 중학교는 2015년에, 고등학교는 2018년에 개교했다

대학 교육의 요람이 될 행정동의 모습. 2021년 11월 대학교 개교를 추진 중이다

2014년 선친의 타계 후 김 동창이 경영권을 이어받으며, 계속 성장세를 이어온 송원그룹은 올해부터 사명을 태경그룹으로 변경, 계열사 전체의 비전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전략화하고 기초 소재 분야 세계 1위를 향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으로 대도약을 선포했다.

이화비즈 / 태경그룹 회장 김해련 동창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국가 기간사업을 이끌다

이번 호 이화비즈에서 소개하는 김해련(경영 84) 동창은 상장사인 태경산업, 태경비케이, 태경케미컬을 비롯하여 태경에코, 태경에스비씨, 남영전구 등 10여 개 계열사에서 1,0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태경그룹의 수장이다. 태경그룹은 철강 및 중화학공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필수 원료인 석회 소재, 망간합금철, 탄산 및 산업용 가스 등 무기화학 기초 소재 분야를 기반으로 지난 45년 간 국가산업 경쟁력을 이끌어 왔다.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의 선친 송원 김영환 회장은 1975년 설립한 태경산업(전 한국전열화학공업)을 모태로 광물 소재 사업군, 산업용 가스사업군, 생활문화 사업군의 세 가지 축으로 소재를 개발하고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등 부단한 도전과 변화를 통해 국내 최고의 산업용 소재 및 중간재 전문 제조 기업군인 송원그룹(현 태경그룹)을 일궈냈다.

산업의 근간 기초 소재 개발

"우리가 생산하는 아이템인 기초 소재는 철강, 제지, 건설, 반도체, 화학, 고무, 에너지, 화장품 등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철강 산업에서는 탈산, 탈황 및 철강재의 강도와 물리적인 성질을 개선하는 페로망간이나 실리콘망간이 쓰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생석회가 사용됩니다. 제지업의 충전이나 코팅용인 중질탄산칼슘, 반도체 세정용으로 쓰이는 액체탄산가스, 고무 제품의 내열성을 부여하는 산화아연,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 원료인 나노산화아연, 공기나 물의 정화제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지요. 모든 산업체가 우리의 고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소재 산업은 제조업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다. 소비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게 여겨져 왔던 기초 소재는 지난해 한일 무역 갈등을 겪으며 언론이나 정부, 국민들에게 그 중요성이 각인되기 시작했다.

태경그룹 계열사 태경에스비씨에서 지난해 말 친환경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주원료인 나노이산화티타늄의 국내 개발이라는 희소식을 전하며 태경그룹은 '화장품 기초 소재 국산화'의 주역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의 타이카(TAYCA)에서 전 세계 시장에 독점 공급했던 기초 소재의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텔리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국내 화장품 회사들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장 취임 후 회사를 확장하던 차에 산화아연 등을 생산하는 기초 소재 개발 회사 에스비씨를 인수하게 되었지요. 아연은 타이어, 골프공 등에도 쓰이지만 특히 자외선 차단제 등에 사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곱게 가는 나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 소재 전문회사인 우리의 노하우에 연구 인력을 붙여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2016년 산화아연 나노화에 성공했고, '지니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생산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에는 나노산화아연뿐 아니라 나노이산화티타늄도 반드시 필요하여 5년 정도 개발을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그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인데, 작년 한일 갈등 상황에서 나노이산화티타늄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 회사가 한국 공급을 제한해 국내 화장품 업계 전체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았던 것이지요."

김 동창은 화장품 기초 소재 개발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과정의 성공 사례 중 한 예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설명한다. 태경그룹에서는 테크니컬 로드맵을 통해 모든 아이템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R&D 투자는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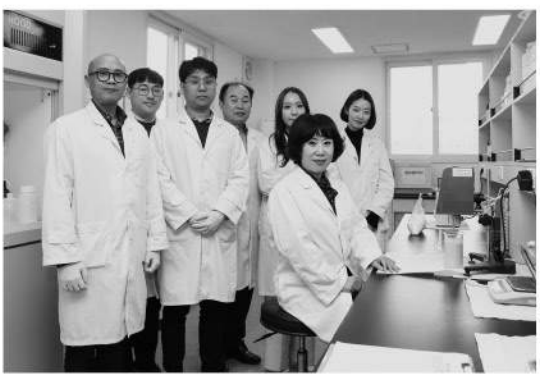
"기초 소재 분야에서 R&D를 게을리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면 주도권이 바로 넘어가지요. 예를 들면 반도체 세정을 요즘은 건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순도의 CO_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산업 분야의 기술 발달과 함께 기초소재도 발맞춰 개발되고 발달해야 합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기도

김해련 동창은 가업을 계승한 오너 경영인이지만 오히려 전문 경영인의 면모가 더 강하다. 태경그룹 합류 전 오랫동안 패션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 왔던 김 동창은 직원 세 명으로 창업하여, 800억 규모의 국내 최초 온라인 쇼핑몰인 패션플러스를 키워낸 전설적인 CEO로 패션계에서는 명망이 높았다.

"모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미국 페이스 대학원에서 MBA를 하고, 다시 FIT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고 귀국하자마자 들어와서 패션 비즈니스 해 보겠다고 29세에 창업한 것이 '아드리안느'라는 패션 브랜드였지요. 이 회사는 아버지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 도움 없이 매장 한 곳부터 시작했어요."

김 동창은 10여 년간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에 입점한 디자이너 브랜드를 창업했다. 그 당시 패션



태경에스비씨 연구소에서 직원들과 함께

브랜드가 인정을 받으려면 백화점에 입점해야 했다. 온몸으로 부딪히며,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백화점 입점을 성공하고 승승장구했지만 IMF로 타격을 받았다.

"IMF가 터지며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매장을 줄이고 자금 회전도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지요.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재고 원단을 활용하여 39홈쇼핑(지금의 GS)을 통해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브랜드 옷을 연예인들이 많이 입었는데 저와 친했던 전인화 씨와 같이 가서 홈쇼핑에서 팔았더니 두 시간 만에 1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홈쇼핑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고, 옷을 입어 보지도 않고 구매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감사 편지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어서 고맙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류를 오프라인에서만 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 시점에 지금은 방송통신대 교수인 이영음, 건국대 교수 이종연, 군산대 교수 홍경선 등 이대 친구들과 우연히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기회가 생겼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모두 인터넷을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태경에스비씨 군산 제2공장 준공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1997~1998년 무렵 미국도 인터넷 초창기였어요. 홈쇼핑에서의 판매 경험을 이야기하며 혹시 인터넷에서도 의류를 판매할 수 있냐고 물으니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생겨 난리가 났다.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옷 파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새로운 비즈니스로 고민하던 김 동창은 인터넷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인터넷 공부를 하고 1999년 이커머스 회사를 차렸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 의류 쇼핑몰 패션플러스가 이렇게 탄생했다.

"누가 인터넷에서 옷을 사냐고 하던 시기였지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바람이 불면서 산업은행, KTB 등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를 받으며 이커머스 회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0년 만인 2010년 패션플러스를 매각하고 나올 때 800억 정도였고, 지금은 2,500억으로 성장했어요. 2010년 송원그룹 부회장으로 들어가며 당시 오프라인에서 유통과 패션브랜드를 갖고 있던 회사가 찾아와 인수하겠다고 하여 넘겼습니다."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10년간 생존하며 패션플러스를 경영했던 경험은 김 동창에게 귀한 자산이 되었다. 시장 개척을 위한 인터넷 솔루션과 시스템 개발, 데이터 관리 등 시대를 선도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해 온 김 동창은 전문가로서 많은 기업의 컨설팅 요청에 응하는 한편, 모교 경영대에서 CEO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소비자 트렌드 관련 마케팅 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다.

공존, 공영, 공익에 혁신과 창조를 더하다

기초 소재를 다루는 태경그룹은 아이템 특성이 패션 분야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송원 김영환

회장의 무남독녀였던 김 동창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전국 공장을 아버지와 함께 다녀 회사와 아이템에 대해 매우 익숙했다. 김 동창은 누군가를 따르기보다는 스스로의 오너십으로 경영하는 스타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동창은 태경그룹에 들어와 기초 소재와 화학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부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2년 동안 매주 화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 직원이 강의를 듣기도 했다.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섭렵하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몸에 밴 김 동창의 업무 습관은 태경그룹을 이끌고 발전시켜 가는 데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사회인으로 성공을 해서 웬만한 남자 CEO보다 더 능력 있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래밍했던 것 같아요. 경영을 하려면 필요한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부지런히 습득하고, 남자 못지않은 체력과 네트워킹을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일을 스물아홉 살부터 몇십 년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김 동창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며 자랐다. 김 동창의 경영 철학은 아버지의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아버지는 항상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고 한다.

첫째,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둘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셋째,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원칙들을 평생 우직하게 고수했던 김 동창의 아버지는 솔선수범하는 리더로서 직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기업인이었다.

"아버지께서 만드신 기업 문화가 워낙 좋았습니다. 평생 '공존, 공영, 공익'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혁신과 창조를 더했습니다."

김 동창은 회사 내부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북돋우기 위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 '통통미팅'은 태경그룹의 독특한 제도이다. 김 동창은 정기적으로 '통통미팅'을 통해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사원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소모적인 회의를 피하는 스마트 워킹이나 데이터와 R&D 중심 경영, 그리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자세 등은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김 동창이 택한 경영방식이다.

아버지 고 김영환 회장은 사업 초창기였던 1983년 송원김영환장학재단을 만들어 어렵게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적극 도와 왔다. 김 동창도 2000년부터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아버지의 꿈을 함께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장학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후배들을 위한 비즈니스 멘토로 활약

김해련 동창은 이화비즈 활동을 통해 비즈니스 멘토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화비즈를 하면서 '이대가 참 좋은 학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는데 외골수라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화비즈에서 만난 분들은 유독 성품이 좋습니다. 50~60명이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 대여섯 명이 가는 듯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만큼 화합도 잘 됩니다. 저마다 자기 몫을 하는데,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각자 자신의 일을 알아서 하지요. 알게 모르게 선배들에게 받은 영향이 후배에게 전해져 이대만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김 동창은 창업을 계획하는 후배들에게 사업이 아이디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배들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화비즈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무국에서 원하는 분야를 연결해 주어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화비즈에서 후배들을 만나면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이화 정신, 즉 섬김, 소통과 경청이라는 여성적인 리더십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김 동창은 예전에는 남성적 카리스마로 사업을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이러한 권위적인 요소가 오히려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이러한 여성 문화가 세상에서 빛을 보는 시대로 변화할 것이라 덧붙인다.

"앞으로는 경쟁으로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워 자기 성장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도 바뀌는데, 소통이나 코디네이션에 능한 여성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유연성 있는 소통의 리더십으로 이화여대가 포지셔닝되고 이대 출신 CEO는 역시 다르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스펙보다 근성과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김 동창은 인재를 뽑을 때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고, 근성이 있는가를 눈여겨본다고 한다. 근성이 있으면서도 소통을 잘하면 최고이다. 게다가 추진력이 좋고 머리까지 논리적이라면 CEO 입장에서는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 요즘은 고령화 시대라 건강 관리와 자기계발을 잘 하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다. 보통 나이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보수적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더 혁신적인 사람들이 없지 않다. 안주하지 않고 나이의 한계를 극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한다.

김 동창은 건강을 위해 체력을 관리하고, 엄청나게 책을 읽는다. 수시로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보며 책 사냥을 한다. 김 동창은 지식을 정리하고 글쓰는 것을 즐긴다. 마케팅 서적뿐 아니라 각종 칼럼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김 동창이 2011년 발간한 『멘토가 간절한 서른에게』는 시간이 흘렀어도 젊은 직장 여성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주옥 같은 삶의 지침으로 가득하다. 그는 2014년 아버지를 기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을 책으로 펴냈다. 앞으로 10년에 한 권씩 계속 책을 낼 예정이라 한다.

김해련 동창은 올 한해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잘 극복해 무기소재화학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파급된 세계 경제의 위기로 인해 앞으로 1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 소재를 다루는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는 늦게 영향을 받겠지만 위기에는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초 소재 분야에서 경쟁하다 보면 독일과 일본 기업을 만납니다. 이들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태경그룹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극단 해(解) 공동 대표 노지향 동창

예술을 통해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져

지난 24년간 극단 '해(解)'를 이끌며 치유 연극과 즉흥 연극을 통해 공감과 소통의 장을 열어 온 노지향(영문 84) 동창을 만났다. 극단 '해'는 소년원생, 기지촌 할머니, 이주노동자,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만드는 작업을 해왔다. 노 동창은 연극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직접 공연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표현하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다. 노지향 동창은 1997년 설립한 극단 '해'와 남편 권용석 변호사가 2009년 시작한 비영리법인 '행복공장'에서 활동하며 성찰과 나눔의 가치를 묵묵히 실현하고 있다.

모교 대학원 영문과에서 희곡을 전공하던 노 동창은 학문을 이어가면서도 늘 사회적 실천에 대해 고민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80년대였다. 창작자로서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다. "대학 때부터 희곡 수업도 열심히 듣고, 연극을 좋아했지만 그때 연극은 주로 번역극이라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 때문에 제 기호에는 맞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대학원 마칠 무렵 연우무대의 창작극 〈한씨 연대기〉를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런 연극이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배우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올 만큼 제겐 의미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노 동창은 연우무대 연출자에게 무작정 받아달라는 편지를 썼다. 김민기, 문성근, 김석만, 이상우, 강신일 등 기라성 같은 배우와 연출가들이 당시 연우무대를 이끌고 있었다. 노 동창은 조연출로 들어갔다. 포스터를 붙이는 잡일부터 조연출로, 때로는 '땜빵' 배우까지 신나게 일했다.

"몇 년 하다 보니 재미는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느낌이 없었어요. 연극은 다른 어떤 일보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일인데도 중요한 무엇인가가 결핍된 듯해 공허했지요. 무대에서 하는 말들은 모두 옳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도 그랬죠."

일상이 예술로, 예술이 일상으로 연결되는 연극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다. 노 동창은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중앙대 연극영화과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아우구스트 보알' 방법을 책으로 접했어요. 보알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연극을 적극적으로 수단화할 것을 강조했지요.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놀이하며 자신의 이야기로 연극을 완성하는 방식으로서 연극을 매우 넓게 사용합니다.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저에게 와닿았지요."

보알(1931~2009)은 브라질의 독재자에 항거하는 연극을 만들다가 1973년 아르헨티나로 망명한 세계적 연극연출가이다. 그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이란 책을 통해 토론 연극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없애고 관객을 연극의 주체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노 동창이 박사과정 중이던 1996년, 보알이 워크숍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 워크숍은 열흘간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노 동창은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과 밑바닥에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박사과정 중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보알의 연극 기법을 배우며 놀라워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대로 헤어질 수 없었다. 서초동에 연습실을 얻고, 극단을 만들었다. 노 동창은 극단 이름을 '해'라고 지었다.

"보알 연극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입니다. 연극으로써 우리가 생활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풀 해(解)를 극단 명으로 삼았지요. 또, 우리는 늘 머리를 너무 씁니다. 보알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하셨던 말이 내게 확 들어왔죠. '해'는 'Don't Think, Just Do It' '그냥 하자, 해'의 중의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은 외부 워크숍이나 공연을 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며 순수하게 실험을 이어나갔다. 이렇게도 놀아 보고 저렇게도 놀아 보던 순간순간

즉흥 연극 〈나의 이야기 극장〉

들이 무척 재미있고 행복했다. 노 동창은 논문은 접고, 과정(코스웍)만 수료한 후 생업을 위한 대학 강의 외에는 완전히 이 일에 몰두했다.

"이 연극에서는 저희가 대본을 쓰고, 있는 대본으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다른 그룹과 만나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벌여 줍니다. 연극이 아니어도 놀이, 미술, 음악 등 자기를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면 뭐든지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들을 모아 그것으로 공연을 합니다. 공연에 올리는 것까지가 작품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황만 정해지면 배우가 스스로 말하므로 누가 적어 주는 대본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닫힌 마음을 활짝 여는 연극 프로젝트

극단 '해'가 이 기법을 도입한 첫 작품이 〈소년원, 아름다운 아이들 시리즈. 1,2,3,4〉이다.

소년원 한 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닫힌 마음과 입을 열게 해주었다. 매주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들으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무뚝뚝하게 툭 던지는 말 속에서 속 깊은 정을 보여 주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극단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공연 성공을 위해 몸에 탈이 날만큼 밤새도록 연습했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데도 아이들과 조건 없이 만나서 그런 신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지요. 지금도 서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극단 '해'의 또 다른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을 다룬 〈숙자 이야기〉이다. 2011년부터 시작했다.

"기지촌 할머니 소식지를 오래 전부터 받고 있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평택 안정리에서 이분들을 돕는 사회단체인 햇살사회복지회에서 먼저 연락을 해서 응했어요. 매주 작업을 위해 방문했고, 평택, 대방동 여성재단 등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했지요."

복지회에서는 이분들이 연극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적이라 했다. 가족과 연락이 단절되어 대부분 홀로 살아가는 이 지역의 60~70대 할머니들은 자기들끼리도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다. 거칠게 말하며 타인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10대 무렵 살기 힘들어 집을 나와 1960~1970년대 기지촌에서 일했던 그들은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연극 작업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직시하고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빗장을 풀고 걸그룹 못지않은 끼를 드러내는 등 본래의 자기 모습을 보여 주었다.

"처음에는 '절대로 남들 앞에 못 서겠으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해서 평택의 문화공간에서 우리끼리 조용히 공연했어요. 첫 공연 후 할머니들이 자신감이 붙었는지, 한 번 더 하자며 언론도 부르자고 하시더군요. 변방연극제 개막작으로 초청되어 500여 명 관객 앞에서 공연을 했어요. 500석 만석에 기립박수를 받았지요."

공연 멤버는 15~20명 내외이다. 들쑥날쑥하지만 할머니들 12명 내외, 복지회 대표와 간사, 연극팀 멤버, 자원봉사자 등이 다 같이 작업하여 무대에 오른다. 공연 내용은 심각한 것만은 아니다. 의미가 있으면서도 재미와 웃음이 있다.

〈숙자 이야기〉 공연 장면

누구든 자기 결핍이 있다. 무대에서 뭔가를 해본다는 것이 무너진 자신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무대에서 표현해 내고 나면 성취감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

"공연에 나왔던 할머니들은 그 뒤로 무슨 일이든 앞장서서 하셨지요. 얼마 전에는 할머니들이 한 달에 만 원씩 내서 우리도 누군가를 돕자고 하시네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것을 나눌 때 내가 편해지지요. 강요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되었어요. 이분들 중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훌륭한 배우가 되었을 분도 있어요."

노 동창은 할머니들의 작업을 기록한 사진집 속의 사진을 가리킨다. "눈빛 봐요. 포주 역할을 한 분입니다. 포주를 엄마라 해요. '엄마 오늘 하루 쉬면 안 돼요? 배 아파요'라는 대사를 했어요. 미군 역할을 했던 분은 처음에는 영어가 안 나오더니 나중에는 영어가 줄줄 나왔지요."

이 연극이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 예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술이 내 일상을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 동창은

이런 워크숍을 하는 중에도 참여하는 멤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살피며 연극하는 작업이 내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쓴다.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답을 했어요. '그럼 한번 가자' 했지요. 여기저기서 기금을 끌어모아 다녀왔어요." 노 동창은 기뻐하는 할머니들에게 '고향 방문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다.

"이분들이 연세가 더 들기 전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갔어요. 어렴풋한 기억으로 고향에 갔는데도 생각이 나는지 발길이 달라졌지요. 누군가의 삶을 묶고 있는 것을 푸는 예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의 자기 자신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백 시어터 기법을 적용한 〈나의 이야기 극장〉

노 동창이 극단 '해'를 통해 하는 일은 크게 두 축으로, 보알 기법의 치유 연극과 플레이백 시어터(즉흥 연극, Playback Theater)이다. 즉흥 연극은 관객이 자기 얘기를 하면 배우와 뮤지션이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 노 동창은 이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장애인, 청년, 청소년, 일반인을 위한 〈나의 이야기 극장〉을 공연하고 있다. 노 동창이 한창 연극 활동을 하던 중 남편이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가게 되었다. 활동을 잠시 접고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노 동창은 가기 전 미국에서 오리지널 플레이백 시어터 그룹을 만들어 즉흥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조나단 폭스 내외에게 연락했다. 노 동창은 미국에서 그들의 강의 코스를 수강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거주하는 조나단 폭스가 인근 대학 캠퍼스 기숙사가 비는 기간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 또 보알 방법론을 쓰는 뉴욕의 극단과 워크숍을 하고, 보알의 컨퍼런스에도 참여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현지의 연극인들과 교류하며, 노 동창은 극단 '해'의 작업 내용이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극단 '해'에서 행복공장으로 연결된 예술 치유를 통한 나눔

노 동창은 극단 '해' 작업을 평생 '내 자리'라고 여기며 보람과 재미를 매진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쯤, 참선을 접하며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줄이고 틈틈이 참선에 몰입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부터 검사와 변호사를 하면서 노 동창의 일을 적극 지지했는데,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저는 내면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시점에, 남편은 더욱 일을 벌이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업무로 극심하게 지쳤을 때, 차라리 교도소의 독방에 갇히고 싶은 심정이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단다.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 남편은 주변의 뜻이 맞는 사람들과 비영리법인 '행복공장' 준비 모임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일을 진전시켰다. 성찰과 나눔을 두 축으로 해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성찰은 독방 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나눔은 예술 치유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극단 '해'와 연결되었다.

독방 체험은 1.5평 작은 방에 홀로 머물며 아무런 간섭도,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다. 행복공장

을 위해 강원도 홍천에 2,550평의 대지에 연면적 320평의 수련동, 강당동, 관리동으로 구성된 수련원을 지었다. 노 동창 부부와 주변의 지인들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비용을 마련했다. 2009년 행복공장이 문을 열었고 수련원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복공장에서는 독방 체험과 참선을 하는 무문관 체험 등의 성찰 프로그램과 극단 '해'와 공동으로 치유 연극, 즉흥 연극과 같은 나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극단 '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나의 이야기 극장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예술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이다. 보알 방법론 또는 즉흥 연극 기법 등을 지역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이를 배워서 연극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며 서로 이야기가 오가야 하니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이고 공동체성도 살아날 것이다. 물론 옆동네 공연도 가능하다.

"연극에 참여했던 모두가 이 경험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해보면 모두들 담아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동네마다 생기면 좋겠다고 합니다. 공연이 있는 날에는 내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요. 누가 하더라도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역 공동체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사업은 극단 '해'와 행복공장 서울 사무실이 위치한 관악구 남현동 근처에 방치된 폐 등기소 건물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올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 공연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창작 주체가 되는 극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노 동창은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더욱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지역사회 사업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다. 노 동창의 삶의 궤적은 경청과 소통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일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노 동창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난 2016년 비영리 전문가 100명이 아시아의 '숨은 영웅'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기금을 조성해 만든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Asia Philanthropy Awards, 위원장 김성수 주교)'를 수상하기도 했다.

행복공장 홍천수련원 프로그램 진행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런 일에 관심 갖는 청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2~3년 동안 청년 프로그램을 해보니 청년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진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힘이 없어 보이고 더 약해 보이는 인상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가치관, 능력에서 더 나아졌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작은 것에도 가치를 두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로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보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많이 행복하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술로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캄보디아 이규연 동창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

저희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과 가난입니다. 오늘도 400여 명이 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꾼 쁘레야 예수~"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귀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빈민촌 및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앵벌이 하는 어른 및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세 번 저녁에 나가 빵과 물을 나눠 주는 '빵 나눔'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라지지 않는 긍휼한 마음과 열망으로 오랜 기간 기다리며 기도한 끝에 헌금과 후원금이 모아져 오븐 설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넓힐수록 책임과 부담은 커지지만 급식 사역도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수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 단체들을 통해 채워지는 것처럼 빵 나눔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나눠지고 남을 줄 믿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빵 나눔을 시작하며 기존에 있던 리어커 오토바이 한 대로는 어려워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나눴더니 얼마 전 포이펫을 다녀가신 집사님께서 흔쾌히 오토바이 비용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명이 일대일 아동 결연을 통해 학비와 쌀, 식료품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극빈한 가정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맺어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아동 결연을 통해 사랑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초등 1학년 과정, 태권도 수업, 한글 교실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교복을 입고 센터에 찾아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빗자루질을 하기도 하고, 조잘조잘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개구지게 장난치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 공부도 하는 아이들에게 저희 센터는 기쁨이요, 삶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40분 넘게 운전해 오셔서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어느 선교사님 내외분의 섬김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공부하며 잘 자라서 빈민촌을 벗어나게 되길, 캄보디아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해 봅니다.

센터에 가면 약도 주고 치료해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저희 센터는 이제 준의원급 병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간단한 처치부터 심한 상처까지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처였지만 방치되고 곪아서 심해진 상태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도 없

는 16개월 아기가 왼팔에 심한 3도 화상을 입고 할머니에게 안겨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서 수술 직후 쫓겨난 아주머니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각하고 어려운 환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당혹스럽지만 한국에 계신 의사 집사님들의 조언과 처방으로 위기를 잘 넘기며 치료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회복되는 저들을 볼 때 참으로 보람됩니다.

태안장로교회의 두 분 집사님의 귀한 헌금으로 센터 바로 앞에 시작되었던 교회 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완공되면 이전보다 더 쉽게 교회에 드나들 수 있고 더 많은 인원이 예배드릴 수 있으니 그동안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몰려와 복음을 듣고 전도 되는 일이 많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어른들이 살아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개월 된 저희 딸 아린이가 캄보디아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 · 도 · 해 · 주 · 세 · 요

1. 이기원 · 이규연 선교사가 매일 기도와 말씀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2. 아린이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소서.
3.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4. 필요한 재정과 함께하는 이들 끊이지 않게 하소서.
5. 우리 센터와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6. 포이펫에 제대로 된 병원이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땅한 병원이 없는 곳이라 돌 전에 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컸는데 모기들과 땀띠말고는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린이가 캄보디아에서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늘 생명 싸개로 보호해 주시길, 저희 가정에 건강의 복을 늘 부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포이펫과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또 헌금으로 함께해 주시는 많은 동역자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 안에 교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글 · 이규연(성악 09)

총동창회 소식

대외협력처와 2020년도 업무 회의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은 2020년 1월 16일(목) 오후 12시 모교 내 식당 자연솜씨에서 대외협력처 최유미 처장과 만나 2020년도 업무 회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외협력처는 김활란 선생 서거 50주기 추모예배, 이화국제재단 50주년 기념행사, 모여라 이화동창 홈커밍데이, 북미주 지회연합회, 장학후원이사회 등 이화 동창 관련 주요 업무를 공유하였으며, 총동창회는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이화인의 밤 행사, 이화가족성탄예배, 바자회 등 2020년도 주요 일정을 알리고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지회에 발송하는 이화 동창수첩 및 달력, 총동창회 각종 행사 지원 및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총동창회 측에서는 이명경(무용 77)·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이 동석했으며 대외협력처에서는 주보림 부처장, 박숙영 팀장, 홍지인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총동창회-모교 간 사업 일정 공유와 함께 긴밀한 협조로 모교 발전에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 및 2020년도 사업계획안 논의

2월 정기임원회가 2020년 2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문화관 804호)에서 출석 31명, 위임 10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461장을 부른 후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로 2020년 2월 정기 임원회를 시작하였다.

주요 안건으로 2019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고, 정기총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경숙(영문 70) 고문과 김영주(교육 71) 고문은 정기총회에 대하여 예정대로 3월 14일(토) 진행하면 좋겠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총회 일정을 순연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장단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였고 전 임원이 동의하였다.

또한 평생회원과 후원이사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생일카드 등)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좋은 아이디어를 추천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총동창회' 명칭 사용에 대해 각 기별 또는 대학별 모임 등에서 유의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총동창회 회칙 보완 개정위원회가 4차에 걸쳐 진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개정' 건에 관한 인쇄물을 배포한 후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개정안 추진 배경 및 개정안을 설명하고 3월 정기총회 상정 및 인준을 위해 임원들의 의견을 받았다.

또한 2020년 '빛나는 이화인' 후보자 추천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할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기타 안건으로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진행하는 합창제에서 최고인기상을 수상한 합창단을 올해 '이화인의 밤' 무대에 초대하기로 하였다.

두 차례 부장단 회의 가져 추경 예산안과 기념품 개발 논의

총동창회는 2월 5일(수) 오전 11시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문화관 804호)에서 부장단 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추경 예산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회칙 보완을 위한 회칙 개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계획안에 예정된 주요 행사 일정을 공유하고 날짜를 확정하였다. 또한 3월 14일(토) 예정된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행사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에서 시상할 '빛나는 이화인'과 그날 추대되는 '올해의 이화인'에 대해서도 각 과 및 대학에 추천 의뢰키로 하였다.

2월 25일(화) 오전 11시 총동창회는 긴급 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적극 수용하고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총동창회 일정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총동창회 기념품 개발 관련 논의도 진행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김곡미 사업부장이 진행 후 보고하기로 하였다.

3월 정기총회와 3월 정기 임원회 개최 연기하기로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3월 12일(목) 개최 예정이었던 3월 정기 임원회와 14일(토)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총회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지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국내 및 해외 지회 회장들에게도 이메일로 안부 인사를 보냈으며 이 환란 중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에서는 지회장을 비롯한 동창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을 임원들에게 전하며 대구 지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선교부 소식

2020년 총동창회 선교부 겨울 수련회

2020년을 한 해를 시작하는 겨울 수련회가 1월 21일(화) 이화여대 다락방전도협회 3층 예배실과 1층 애찬실에서 열렸다. 10시 30분에서 3시 30분까지의 일일 수련회에는 총 57명이 참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나누었다.

1부는 허성희(성악 87) 전 음대 선교부장의 찬양인도로 시작해, 김미순(기독 75) 전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신경자(사생 87) 사범대 선교부장이 나와 대표 기도를 드렸고 한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모교 종교음악과 동창들로 구성된 '이화 그레이스 콰이어'에서 〈사명〉이라는 곡으로 특송을 하였다. 조이엘(장미 82) 목사는 창 12:10-20; 20:17-18 본문으로 '사라야 내가 너를 불러 세웠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다. 설교자는 본문에서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인간적인 결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라를 택하셨듯, 우리 인생의 결함, 부족함, 연약함들이 사라처럼 우리를 택하시는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당신의 간증을 통해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라'로 택하신 이화 동창들의 귀한 헌신과 희생의 기도로 이화여대가 다시 한 번 치유와 회복, 부흥을 경험하며 세계 선교에 기여하게 되는 놀라운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2부는 성혜옥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 식사 이후에는 춤으로 예수님의 사

랑을 전하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을 담당하는 신은경(무용 78) 동창과 제자인 이지혜(무용 02)·김하예린(무용 08) 동창의 귀한 간증이 있었다. 신은경 동창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한 뒤 6세 때 안짱다리였던 자신이 발레를 시작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와 결혼하여 사모가 되어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 가운데 이대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는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 이후에 신 동창은 '이화발레앙상블'을 창단하여 국내 공연과 함께 미국, 호주,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 이스라엘, 케냐,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나아가 공연하며 해외 선교와 기독문화 선교에 관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5회의 공연을 가져오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으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등 자신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해 주었다. 이지혜·김하예린 동창도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에 참여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며 그들의 재능인 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기쁨에 대해 나누어 주었다.

이날 총동창회 선교부는 2020년 계획도 나누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세워 주며,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였다.

AUTISTAR로부터 온 선물

2월 17일(월) 이소현(특교 83) 동창이 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선물을 선교부로 보냈다. 이 동창은 자폐아 전공으로, 이들을 위한 그림 재능을 발견해 AUTISTAR를 만들어 교육시키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여 그들이 어엿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었다. 이소현 동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는 세상,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화에서 가능한 일이 되었네요"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린 그림으로 대형 포스트잇과 그림 수첩을 만들어 선교지와 동창 선교사들에게 이화의 정신이 담긴 선물을 보내고 있다.

앙스모드, '고급 의상'을 통한 위로와 격려의 선물

선교사들에게 고급 의상을 기증한 안윤정 동창

총동창회 선교부에서는 매년 방문하는 동창 선교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있다. 바로 '(주)사라 앙스모드' 대표 안윤정(독문 69) 동창이 선교사들에게 후원한 '고급 의상' 선물이다.

안윤정 동창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여러 형편 때문에 귀국해서 갑자기 옷을 구입하기 힘들거나, 교회 등에서 선교 보고의 요청을 받고 갈 때 옷차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곤란을 겪는 상황들이 생기자 의상 후원을 결심하였다. 안윤정 동창은 동창 선교사들에게 좋은 의상을 선물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교에 기여하고 있다.

글·이수진(조소 05)

모교 소식

23만 이화 동창 네트워크 우수한 역량 입증

인재개발원(원장 조일현)은 재학생과 동창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인 '톡톡선배'는 재학생이 관심 갖는 기업이나 직무의 선배와 일대일 취업 상담을 할 수 있어 '2018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평균 만족도가 88%에 달했다. 2019학년도에는 동창 선배 멘토 400여 명의 도움을 받아 재학생과 현직자의 일대일 상담이 1,700여 건 진행됐으며, 참가 학생의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는 졸업 후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져 '톡톡선배'에 참여했던 동창들의 멘토 참여 사례가 늘었다.

인재개발원은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발전 역량·인성 중심에서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으로 변화하는 채용 시장의 변화를 파악, 동창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직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코칭 프로그램을 확대해 왔다. 매 학기 20여 개 직무에 대한 '멘토링 스쿨'을 개설하고, 저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길 시리즈' 연속 특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직업·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평소 접하기 힘든 직군의 선배를 만나보는 '시리즈 특강', 박람회 형태의 '이화멘토링데이' 등을 개최해 현직 선배로부터 생생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 취업하고 싶은 후배의 연결 고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속감 고취뿐만 아니라 취업률 상승에 유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19년 10월에는 이화인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모교 출신 전문 경영인 네트워크 '이화비즈'와 MOU를 체결하고, 그 첫 프로그램으로 이화비즈와 연계한 오피스 투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 참가자 18명은 10월 28일(월) 모교 출신 팽경인(사회 86) 동창이 대표를 맡고 있는 그룹세브코리아(GSK)를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회사 소개 및 전형 안내, 직무(HR,

Marketing, Sales, Finance, Operations 등) 소개를 듣고, 직무별 Q&A를 통해 외국계 기업과 관련해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조일현 인재개발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교가 취업률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건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취업지원 시스템이 탁월하고 동창 네트워크가 탄탄한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전통과 역량을 기반으로 모교는 최근 발표된 '2019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 결과 여성 임원 최다 배출 대학(학부 기준 29명)을 기록했다. 석·박사까지 포함하면 총 35명의 여성 임원을 배출하며 주요 키워드 '사·이·공(四·梨·工, 40대·이화여대·공학계열)'으로 꼽힌 바 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선정

모교가 서대문구와 함께 응모한 '2020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대학가 주변 상권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대학에 종합형 최대 20억 원, 단위형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모교는 대학별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창업 등 청년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단위형 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는다.

기업가센터(센터장 반효경)는 '이화 52번가 조성사업', 'E-faro(이화패션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대학과 자치구가 창업 육성과 지역 상생을 위해 서대문구와 진행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창업팀 육성과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스타일과 기술혁신으로 살아나는 에스티로 타운(Estilo Town)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에스티로(Estilo)는 스페인어로 '스타일'을 뜻하며 에스티로 타운(Estilo Town)은 이화 스타일테크 타운(Ewha Styletech Town) 조성 사업의 창업 육성프로그램 'Ideathon', 'Lean Start-up', 'Open Innovation'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 'Tech Academy', 'Open Campus', 'With Network'의 앞 글자를 딴 사업명이다.

모교는 이랜드(박성경), 아이소이(이진민), 한경희생활과학(한경희) 등 패션·뷰티 분야의 선두 기업을 창업한 동창 기업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창 및 재학생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타일테크(패션·뷰티 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산업) 타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교는 2019년 12월 스타일테크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MOU 체결 및 스타일테크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으며, 스타일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관련 분야 중

견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가센터 이진규 부센터장은 "향후 이화여대와 서대문구는 이번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스타일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권과 청년 창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에스티로 타운이 K스타일 산업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리하고 강력하게, 대학 메인 홈페이지 구축 완료

모교는 2020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2월 14일(금) 새로운 대학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모교 정보통신처는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는 웹서비스 이용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대학 메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을 지원하는 반응형 웹 UI 구조 및 디자인을 적용해 사용자 사용성 및 접근성을 극대화했으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효과적 온라인 홍보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신 IT 환경에 발맞춰 웹 표준, 웹 접근성,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관리기능 개선 등 기술적 보안 조치 역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 퍼스트'를 목표로 홈페이지 전체에 반응형 페이지를 구현했으며, HTML5를 사용한 One Source Multi Use 플랫폼 구축으로 크로스 브라우징 및 멀티 디바이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및 서비스도 적극 확대해 '캠퍼스맵'의 경우 건물/공간 정보 및 건물까지의 길 찾기 기능이 추가됐으며, 셔틀버스 운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와 교내 정보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정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검색 기능을 구현했다.

'이화 그린'을 메인 테마로 한 새 홈페이지는 브랜드 이미지 정립 및 소통을 위한 킬러 콘텐츠 강화에 방점을 뒀다. 뉴스 및 공지 게시물 중심이었던 기존 메인 페이지에 연구 성과, 기부자 및 동창 인터뷰, 역사 카드 뉴스 등은 물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SNS 콘텐츠까지 확대해 전면 배치했다. 그동안 각 온라인 채널에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를 대학 홈페이지에 통합, 반영함으로써 홈페이지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 홈페이지는 국·영문 듀얼 모드로 개발해, 이러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영문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국·영문 콘텐츠를 한번에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기관/학과 소식'을 신설하고, 학사 및 장학 일정을 캘린더 형으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과 참여 증진을 통해 대학 홈페이지가 단방향 정보 전달의 창구를 벗어나 소통형 웹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학년도 신입생 환영 프로그램 '웰컴 투 이화' 개최

모교는 2020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환영 프로그램 '웰컴 투 이화(Welcome to Ewha)'를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2월 28일(금)로 예정됐던 입학식은 취소됐지만 온라인을 통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 학부 신입생은 2월 25일(화) 기준 외국인특별전형 62명을 포함한 총 3,366명으로 앞으로 4년간 14개 대학, 73개 학과 소속으로 모교에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 이번 학기에 입학하는 새내기에는 학부생 다니엘라 베아트리스(컴퓨터공학전공, 온두라스) 등 아시아와 중남미 7개국 출신의 이화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EGPP) 장학생 7명이 포함돼 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웰컴 투 이화'는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토크콘서트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졸업생 MC의 진행과 재학생 패널들의 토크를 통해 신입생을 환영하고 교내 학생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본래 입학식 직후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이날 라이브 방송은 김혜숙 총장의 입학 축하 인사로 시작됐다. 김 총장은 "이화에서 경험하게 될 깊은 지성, 여성적 연대와 협업,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이야말로 험한 파고를 넘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될 것이며 이화라는 공동체 안에서 좋은 스승, 친구, 선배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 역사관을 키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남성교수중창단의 미니 콘서트가 이어졌다. 매년 입학식 때마다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을 펼치며 신입생들에게 폭발적 호응을 받은 남성교수중창단은 올해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노래〉, 〈합정역 5번출구〉 등을 개사한 메들리와 함께 춤과 의상 등을 준비하는 열의를 보이며 사전 녹화로 진행된 신입생 축하 공연을 멋지게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라이브 방송에서는 스브스뉴스 PD 이은재(사학 16) 동창의 사회로 재학생 패널들이 생생한 캠퍼스 라이프와 대학 생활 노하우를 들려줬다. 이한나(의류산업 16학번)·송윤수(경제 17학번)·박도연(교공 18학번)·주지은(커미부 18학번) 재학생은 글로벌 프론티어, 캠퍼스 리더, 해외봉사 등 신입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객원교수 소라미(영문 97) 동창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해 이화에서의 학창 시절과 16년간 소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공익변호사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양한 이화 구성원을 만나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학식 취소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던 이날 라이브 방송은 2,000여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시청하며 주목을 받았다.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사범대학

회장 _ 한은주(특교 79)

동창회 행사를 빛내는 합창단 활약 기대

사범대학 동창회 소속 합창단(단장 한은주)은 지난 1월 6일(월) 정오에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합창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20여 명의 사범대학 합창단원이 참석하여 전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활동 보고를 하였다.

2020년도 사범대학 동창회 임원은 전년도에 수고해 준 회장 한은주 동창을 비롯하여 총무 이영옥(영교 78) 동창과 회계 이선자(수교 77) 동창이 모두 유임하였다.

총회의 주요 안건은 합창단원 증원을 위해 각자 노력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2020년 이화 창립 134주년 기념 동창의 날 합창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올해도 사범대학 합창단의 활약으로 동창회 행사를 빛내는 데 일익을 담당하자고 결의하고 총회를 마쳤다.

합창단 총회를 개최한 사범대학 동창회

의과대학

회장 _ 심 현(의학 80)

이예누 모임·신년회·고문회의 등 만남

이화의대 동창회 2019년 학술 심포지엄 및 송년의 밤이 2019년 12월 7일(토)에 모교 의과대학 3층 대강당(계림홀)에서 열렸다.

1부 순서로 학술 심포지엄, 2부 회장님 말씀 및 내빈 축사와 만찬에 이어 3부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20년 1월 11일(토) 예술의전당에서 이화의대 동창회 이예누 모임이 있었다. 의대 동창들은 예

신년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동창들

술의전당 맛은편의 백년옥에서 맛있는 식사로 몸을 보신한 후, 예술의전당 내 CJ 토월극장에서 뮤지컬 〈빅 피쉬〉를 관람하면서 마음을 보신했다. 의대 동창들과 같이 관람하니 감동이 더 커지는 것 같았다. 특히 심현 회장, 한경숙(의학 82) 부회장과 가족들, 의협 회의에 다녀오느라 식사도 못하고 함께한 오혜숙(의학 78) 전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16일(목) 백리향에서 심현 회장, 동창회 집행부, 홍기숙(의학 80) 감사와 함께 신년회 및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심현 회장은 지난 1년간 수고한 이사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2020년 한 해를 후회 없이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63빌딩의 야경을 즐길 사이도 없이 여러 이사들의 각 분야의 보고들로 열정 가득한 회의가 이루어졌고 22대 집행부는 많은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현 회장의 "다시 못올 한 번의 기회이니 모든 것이 기쁜 기회이다"라는 말에 인생의 놀라운 한 수를 깨닫기도 했다. 선배들의 깊은 지혜들을 배우며 2020년도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다.

1월 21일(화) 봉우리에서 2019년 제10차 이대의대 동창회 고문회의가 열려 오현숙(의학 56)·차순자(의학 60)·이현숙(의학 64)·이국자(의학 67)·지현숙(의학 70)·김화숙(의학 71)·윤석완(의학 76)·오혜숙 고문이 참석하였다. 이날 의대 동창회 고문회의에서는 제22대 집행부 회무 및 결산 보고를 하였다.

22대 집행부는 심현 회장, 성시열(의학 81) 수석부회장, 길선연(의학 81)·한경숙 부회장, 피상순(의학 84) 총무, 이명화(의학 84)·김태경(의학 84)·김성희(의학 84) 이사로 총 8명이다.

간호대학

회장 _ 임경희(간호 80)

LA에서 열린 신년 모임

간호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안영숙·간호 75) 2020년 신년 모임이 1월 18일(토) 6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인타운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안영숙 회장의 인사말, 교가 제창, 식사기도, 최근 모교 간호대학 소식, 서기 보고 및 동창회 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 모임에는 대선배이자 1회 졸업생 김설자(간호 59) 동창이 참석하여 후배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기도 했다. 이날 신년 모임에선 양정남(간호 60) 동창의 하와이언 댄스, 이애숙(간호 76) 동창의 가야금 연주가 특별순서로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남가주 동창회 신년 모임에 참석한 동창들

약학대학

회장 _ 김용재(약학 82)

새롭게 출발하는 신입 동창들 격려

2019년 12월 4일(수) 루안에서 정기 임원회의가 열렸다. 정기총회 결산보고 및 평가와 2020년 신년 계획안이 발표되고 특별위원회인 주홍장학회와 약학연구소 후원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선교예배와 환영회에 참석한 약학대학 신입 동창들

주홍장학회와 약학연구소 후원회는 주홍장학금을 모교 재학생 3명에게 1년간 주고 있으며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창회와 모교는 더욱 끈끈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동창 간에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2020년 1월 7일(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신년 하례회가 있었다. 45명이 참석하였으며 하현주 학장의 모교 소식 보고가 있었다. 하 학장은 약대 통합 6년제로의 변화에 모교 내에서 힘을 내고 있으며 동창회의 약대 건축기금 모금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임원들의 특송과 해금 연주로 흥을 더하였고 고문·자문위원들의 훈훈한 덕담으로 신년 맞이를 축하하였으며 이강희(약학 66) 동창의 스카프 선물, 김해임(약학 86) 동창의 떡 선물로 따뜻한 마음을 선물받았다.

2월 11일(화) 오전 11시 약대 약학관 B동 108호 교수 회의실에서 약대 선교예배 및 신입 동창 환영회가 열려 졸업생 6명과 동창회 임원 등 37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선교예배를 드린 후 간단한 신입 동창 환영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여경(약학 20) 신입 동창 대표의 입회 선서와 동창회장의 환영사, 학장의 격려사,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비록 몇 명에 불과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입 동창들을 격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ewhaalum.or.kr

총동창회 홈페이지 이용해 보셨나요?

http://www.ewhaalum.or.kr

23만 이화 동창의 소통과 나눔을 위해 개설된 총동창회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총동창회의 다양한 행사 일정과 동창들의 근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화 동창을 위한 모교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난호 《이화동창》도 언제든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

과(학부) 소식

국어국문학과

회장 _ 송동수(74)

졸업 6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모임

1월 26일(일) 올해 졸업 60주년이 되는 국문학과 56학번(1960년 졸업) 동창들이 졸업 60주년을 기념하여 작은 모임을 가졌다. 1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졸업 60주년을 축하하고, 장학금 200만 원을 국어국문학과 동창회에 기탁했다.

56학번 동창들은 졸업 4년 후 모임을 시작해 현재까지 매달 26일에 모임을 하고 있다. 56학번 동창들은 자녀들의 유치원 입학엔 연필 선물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엔 만년필을, 고등학교 입학에는 운동화를, 대학교 입학 시에는 구두 티켓을 선물해 가며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자녀 세 명까지의 결혼식, 부모의 장례 두 번까지는 회비에서 지원했다). 동창들은 환갑 때는 하와이 여행을, 칠순 때는 코리아하우스에서 칠순 잔치를 하였고, 희수 때는 롯데호텔에서 30여 명이 모여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영어영문학과

회장 _ 김혜정(72)

가평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임원 수련회

영학회에서는 2019년 12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가평 아난티에서 임원 수련회를 가졌다. 김혜정 회장을 비롯해 12명의 임원들은 초겨울의 문턱에서 1박 2일 동안의 임원 수련회를 통해 선후배 간의 우의를 다졌다.

영학회의 임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영학회의 활동 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해 진지한 얘기를 나누었다. 모두의 가슴에 이화 영학회라는 연대의식과 더불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국문과 1960년 졸업 동창들이 모여 졸업 60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임원 수련회에 참석한 영문과 동창들

불어불문학과

회장 _ 유혜영(78)

연말 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

불어불문학과 동창 모임인 '아미회'는 2019년 12월 18일(수) 프리마호텔에서 멋지고 근사한 연말 모임을 가졌다. 많은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은숙(84)·정혜선(84) 동창의 해금 연주도 관람하고 다양한 오락도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연말모임에 참석한 불문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 _ 이봉무(72)

코로나19로 기 간사 모임 취소

코로나19가 유행함에 따라 2월 기 간사 모임은 동창들의 안전을 위하여 취소하였다.

정치외교학과

회장 _ 황혜경(87)

총회를 위한 임원들의 노고 돋보여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이정회'의 23대 임원진은

총회 개최를 위해 여러 차례 준비 모임을 가진 이정회 임원들

2019년 총회 및 신입 회원 환영회 개최를 위한 준비 모임을 12월과 1월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2020년 졸업 예정인 36명의 후배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동창회 회원 가입 권유 및 환영회 참여율을 높이고, 소통 팀장 3명을 중심으로 각 기별 간사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총무와 감사는 2019년 활동 보고를 영상으로 제작했다. 회장과 부회장은 멘토 역할을 해줄 선후배들을 연락하여 참여를 권유했다. 특히 충남 아산에 사는 회장은 서울과 아산을 오가는 열정을 보였다.

그러나 2월 21일(금)로 예정된 일정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연기되고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사이버 총회로 대체되었다.

사회복지학과

회장 _ 한인영(72)

뉴질랜드 Massey 대학에 초청 특강

사회복지학과 동창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한인영 동창이 2월 10일(월)부터 29일(일)까지 뉴질랜드 Massey 대학의 초청을 받아 'Global Social Work Come of Age'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의 국제 경향에 대해 Auckland 지역사회를 위한 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스크랜튼 여사가 한 명의 여성으로 설립한 이화여자대학의 발전과 졸업생들의 활약 그리고 EGPP를 통해 저개발국가의 여성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스크랜튼 여사의 사례를 통해 한 명의 헌신이 가져온 거대한 결과를 설명한 한인영 동창은 이 밖에도 대학원 특강, 한인 중년여성 정신 건강 특강, 현지 미디어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귀국하였다. 한 동창은 이화여대 명예교수로서 은퇴 이후 저개발국가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한인여성회 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물리학과

회장 __ 최은영(87)

송년 모임을 갖고 동창 간의 정 나눠

2019년 물리학과 송년 모임이 54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2월 5일(목) 반포 토다이에서 있었다. 9기 동창들의 후원금과 김경희(73) 동창의 예쁜 코사지, 전경희(71) 동창님의 사과와 사과즙, 그밖에 후원금과 물품 보내준 동창들 그리고 블링블링 예쁜 모습으로 참석해준 여러 선후배들에게 감사한다. 2020년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길 바란다.

송년 모임에 참석한 물리학과 동창들

서양화과

회장 __ 채정수(83)

이화 평면전시전에 16명의 동창이 참여

2019년 10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갤러리 고도에서 이화 평면전시전이 개최되었다. 참여 작가는 최구자(65)·김수자(73)·황혜선(73)·이종영(75)·박운주(76)·안경희(77)·강태화(83)·김정효(83)·박향림(83)·박신숙(87)·김효선(89)·박가나(89)·정연주(89)·한여옥(89)·박효실(90)·최문선(92) 동창 등 총 16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이화평면전시전은 김효선 동창이 큐레이터로 기획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매년 전시를 이어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서양화과 동창들

오고 있다.

11월 25일(월) 이화인의 밤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서양화과 동창들은 조형예술대학 합창단에 함께 참여하여, 이화인의 밤 행사에 노래와 춤으로 끼를 발산하였다.

섬유예술과

회장 _ 박희전(90)

섬유예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다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2019년 12월 7일(토)부터 14일(토)까지 이화섬유조형회(회장 전경화 · 89)의 전시가 개최되었다.

장영란(77) 동창의 전통자수 소장 작품 350점과 장 동창의 현대자수 작품 75점, 엄정윤(49) 명예교수 작품 1점, 회원 작품 50점, 부스 개인전 작가 작품 200점 등 섬유조형전의 총 676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평일에도 관람 인원이 3,174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시 관람을 하여 성공적인 전시를 이루었다.

한가람미술관 1층 전체에서 제1 전시실은 한국의 전통자수 소장전과 현 동창 작가들이 창작한 전통자수, 현대자수 전시가 있었고, 제2 전시실은 이화섬유조형회 회원전과 작가 부스 개인전으로 구성되어 섬유로 창작된 직물, 타피스트리, 의상, 넥타이, 오브제, 염색, 설치 등 평면 조형, 입체 조형, 텍스타일 디자인이 전시되었다.

이화섬유조형회 회원 38명과 봉지희(85)·김운경(87)·김유림(89)·전경화(89)·이상영(94)·이혜원(96)·서원(02)·서지혜(02) 동창이 8명의 작가 부스 개인전에 참여하였다.

섬유예술과를 졸업한 동창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이화섬유조형회는 전통과 현대 섬유예술의 전 분야를 동시에 보여 줄 수 있는 전시가 가능하며,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전시 활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화섬유조형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섬유예술과 동창들

생활미술과

회장 _ 김곡미(87)

제36회 비주얼메세지 회원전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2019 비주얼메세지 회원전이 2019년 12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청담동 갤러리원에서 열렸다. '공감:collabor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느끼는 마음, 협력과 교류'라는 의미를 담아 함께 작업한 작품들을 전

비주얼메세지 회원전에 참여한 생활미술과 동창들

시하였다.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프닝에는 특별 손님으로 온 서경석 씨의 사회로 이영희 교수(생미 68)의 축사와 회장의 감사 인사가 있었고, 전시에 참여한 동창들의 인사와 간단한 작품 설명이 있었다.

또한 이영희 교수의 열두 번째 개인전 '뜨개야?'가 마곡동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 갤러리 아트큐브에서 2019년 12월 24일(화)부터 2020년 2월 15일(토)까지 진행되었다.

1월 14일(화)에 열린 오프닝에는 조재경 학장, 최유미 대외협력처장 외 많은 선후배 동창들 그리고 이대서울병원 원장과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많은 이들이 함께한 덕분에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영희 교수는 전시 후 모든 작품을 이대서울병원에 기증하였다. 기증한 작품들로 인해 이대서울병원이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날 듯하다.

유아교육과

회장 _ 유청옥(88)

신년 하례 행사로 은사·동창 간의 사랑 나눠

2020년 1월 10일(금) 동창회관 대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신년하례 행사를 개최하였다. 현직 교수 및 동창회 전·현직 임원, 신입 동창 등 6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퇴직 은사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신년하례 행사를 진행하였다.

1부는 박희경(89) 부회장의 사회로 찬송가를 부르며 시작하였고, 안영주(88) 선교부장의 기도, 유청옥 회장의 인사, 이정환 · 이은화 은사님의 덕담, 학과 및 부속기관장의 소식 전달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9년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김용희(89) 동창이 정성껏 준비한 꽃 화분으로 테이블을 아름답게 장식하였고, 졸업 10·20·30·40·50주년 기념 동창과 신입 동창에게는 축하와 환영의 의미를 담은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신년 하례 행사를 개최하고 모인 유아교육과 동창들

2부는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개그우먼 조승희 씨의 사회로 레크레이션이 진행되었고 팀별, 개인별 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였다. 교가 제창 후 참석자들이 다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행사를 마쳤다.

유아교육과 동창회에서는 해마다 1월 11일(2020년은 주말이라 날짜 변경) 신년하례 행사로 은사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동창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수교육과

회장 _ 명경미(82)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1월 30일(목) 오후 5시 30분 모교 이삼봉홀에서 '특수교육과 동문의 밤'이 열렸다. 이 행사는 동창 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위한 것으로 71학

번부터 15학번까지 특수교육과 졸업생 66명(모교 교수진 4명 포함)이 함께하였다.

개회선언 및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한 1부 총회는 감사보고, 회계 및 사업보고 그리고 신입동창 환영이 있었다. 2부에서는 각 자리를 빛내고 있는 동창들을 소개하였는데, 공방을 운영 하는 박소예(14) 동창의 '메리타임' 소개가 있었고,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둔 사람들의 모임인 '넘어울림'을 임수지(18) 동창이 알렸다. 또한 김유리 동창(96·현 특수교육과 학과장)이 2020년 졸업 예정 유아 · 초등 특수교육 전공 동창 중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동창들이 모두 합격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함께 축하를 나누며 발표 예정인 중등 특수교사 임용 시험 결과에 대해 기대를 모았다.

3부에서는 단체 사진 촬영 후, 식사를 가지며 각 학번 대표들이 기부한 상품을 행운권 추첨을 통해 전달하는 나눔이 있었다. 이날 최다 인원이 참가한 08학번에게는 축하 상금이 증정되기도 하였다. 행사는 저녁 8시경 명경미 회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처음 '동문의 밤'에 참석한 송은진(20) 동창은 "이렇게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있는지 몰랐다. 매년 반가운 만남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특수교육과 동창들

국제사무학과

회장 __ 정성휘(88)

코로나19 성금 전달

국제 사무학과 동창회는 2월 28일(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관련 성금 100만 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금회에 전달했다. 국제사무학과 동창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에 작은 손길을 보태기 위해 나눔 실천을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동창들이 성금 운동에 동참하여 직접적으로 대구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에 개별적으로 성금하였다.

식품영양학과

회장 __ 권오옥(81)

새로운 임원진 구성

식품영양학과 동창회는 올해 3월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지난 4년간 많은 수고를 해준 전임 정조인(83) 회장 후임으로 신임 권오옥 회장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신임 부회장으로 김연중(81)·김호연(88) 동창이 선출되었다. 또한 그동안 수고해준 안혜상(88)·김 유경(90) 동창을 대신하여 이윤화(91)·김관지(93) 동창이 총무 일을 맡아 주기로 하였다.

바쁜 와중에도 동창회를 위해 봉사한 전임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롭게 선임된 임원진들에게 많은 성원과 응원을 바란다.

남가주(LA) 지회

회장 _ 남궁봉일(체육 81)

저물어가는 2019년의 행복한 마무리

2019년 12월 8일(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1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부 행사에서는 안혜숙(간호 74) 동창의 사회로 이춘자(약학 62) 장학위원이 동창 자녀 세 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박신화(기독 70) 이사장이 장계원(문정 76) 전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곧이어 이보경(생미 80) 전 회장의 이임사와 새로 취임한 남궁봉일(체육 81)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2부에는 엄인용(성악 72)·정원혜(성악 83)·원순일(성악 85) 동창의 삼중창과 주희정(피아노 08) 동창의 피아노와 클라리넷 이중주가 있었으며, 시애틀에서 개최된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작년에 이어 최우수작품상(대상)을 받은 임원팀의 특별 공연으로 흥을 돋우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2020년 2월 26일(수)에는 Garden Suite Hotel Banquet Room에서 서양 약초 및 약선 요리 강좌가 개최됐다. 이 강좌에 참여한 동창들은 서양 약초(바질, 로즈마리, 타임, 파슬리, 세이지)를 이용한 약선 요리를 배우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창들이 서양 약초의 효능을 알고 이 약초들을 통해 어떻게 건강한 식단을 꾸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인의 식단과 어우러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뉴욕 지회

회장 _ 강혜경(영문 83)

2020년 신년 하례 모임

2020년 1월 25일(토) 오후 12시에 뉴저지 티넥에 소재한 Teaneck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열린 이번 신년 하례식은 뉴욕 동창회 장학금을 후원하는 후원이사들에게 감사하는 모임으로 치러졌다. 현 임원진과 후원이사들 중 총 25명이 참석하였고, 2020년 뉴욕 동창회의 장학기금 마련 후원이사가 될 동창들도 자리를 같이했다.

이날은 마침 한국의 설날이라 떡만둣국과 빈대떡, 각종 나물 등 전통적인 설 음식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화의 정을 나누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윷놀이로 웃고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

떡만둣국을 나누며 신년 하례 모임을 치른 뉴욕 지회

다. 더불어 이날 생일을 맞은 이숙인(사학 69) 동창을 축하하고 새롭게 동창회에 참석해 후원이사가 된 강명원(생미 85)·박은경(생명 85)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라스베이거스 지회

회장 __ 이명숙(문정 66)

더욱 알찬 동창 모임을 기원

2019년 12월 14일(토) 궁 레스토랑에서 21명의 동창과 게스트들이 모여 앞으로 더욱 알찬 동창 모임을 기원하면서 즐거운 송년 모임을 가졌다.

2019년에는 이곳 라스베가스 지회의 최고 연장자였던 임삼규(영문 54) 동창을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과 의미 있는 2020년 동창 모임으로의 발전을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회장에는 이명숙 동창이, 회계에 이경숙 (교육 64) 동창이 선출되었다.

송년 모임에 참석한 라스베이거스 지회 동창들

멜버른 지회

회장 __ 신은미(사회 99)

공원에서 연말 피크닉 모임

2019년 12월 7일(토) Malvern에 위치한 공원에서 가족 동반 연말 피크닉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뉴질랜드에서 멜버른으로 온 박선화(사복 81) 동창,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온 오지영(한음 03) 동창, 브리즈번에서 멜버른으로 옮겨온 이주희(국문 03) 동창이 새롭게 참석해 더욱 반가운 자리였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푸짐한 음식과 음료를 즐기며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석한 동창들은 모교 기념품 및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피크닉을 즐긴 멜버른 지회 동창들

몬트리올 지회

회장 __ 김명원(수학 92)

송년회 모임으로 정을 나눠

2019년 12월 7일(토) 웨스트마운트시 언덕에 위치한 백희준(수학 82) 동창의 아름다운 집에서

2019 송년회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이채화(무용 76) 동창의 즉석 초대로 몬트리올 영사 부인 한예성(서양 97) 동창이 새롭게 참가해서 젊음을 보태 주었다. 큰소리로 교가도 마음껏 부르고, 공복자(장미 59입학) 동창의 기도로 점심 식사 모임을 시작했다. 한국 식품에서 케이터링 주문한 다양한 한식 뷔페를 위주로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그동안의 소식을 전하며 정을 나누었다. 회장단이 준비한 구디백 선물과 함께, 백희준 동창이 한국 친정에서 공수한 한과를 한아름 안고 다음 메이데이 모임을 기약하였다.

백희준 동창의 집에서 송년회 모임을 한 몬트리올 지회

보스턴 지회 동창들은 손수 제작한 담요를 기부하였다

보스턴 지회

회장 _ 신은경(법학 88)

부부 동반으로 연말 파티 개최

보스턴 지회는 2019년 12월 7일(토) Burlington, MA에 위치한 Seven Spring Club house에서 부부 동반으로 연말 파티를 개최하였다. 동창들은 몇 달에 걸쳐 손수 제작한 담요를 지역 내 이민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기부하였다. 또한 땅콩, 고춧가루, 도토리국수 등 판매로 정성껏 마련한 바자 수익과 동창들의 기부금을 모아서 두 명의 지역 사회 장학생을 선발하여 각각 1,000 달러씩 수여하였다. 장학금을 받은 김은석 대학원생은 Boston University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정윤정 학생은 Northeastern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동창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단을 임명하였다. 회장으로 신은경(법학 88) 동창, 부회장으로는 공정원(영문 83) 동창, 총무로는 강정림(교육 85) 동창이 선출되었다. 맛있는 식사 시간에 이어 라인 댄스로 몸을 푼 동창들은 김지영 회장의 진행으로 다양한 게임을 함께하며 박장대소를 터트렸다. 여러 동창의 기부로 다양한 상품이 마련된 경품권 추첨 행사가 이어져 한 명도 빠짐없이 선물을 나누는 푸짐한 자리가 되었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_ 곽정연(독문 76)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9년 12월 1일(일) San Mateo에 소재한 Crown Plaza Hotel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개최되어 49명의 동창들이 모였다. 바이올리니스트 Richard Chon과 기타리스트 John Nicholas의 〈보리밭〉, 〈고향의 봄〉, 〈사랑해 당신을〉과 재즈곡 등 감미로운 음악은 동창들을 매료시켰다. 또한 정순진(의직 80) 동창의 남편 박인철 씨의 색소폰 연주와 김지연(성악 91) 동창이 지휘하는 북가주 이화여대 합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창단의 찬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모든 동창에게 동창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함께 모교에서 송부한 빨간 동창수첩을 나누어 주었다.

2020년 1월 4일(토) Milpitas에 소재한 장수장 식당에서 29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1년 동안 차편을 제공하는 등 수고한 열 명의 동창들에게 Lucky Money 2달러와 떡국떡을 선물로 주며 감사를 표했다. 모이는 날이 정초라 푸짐한 음식과 함께 동창들 간의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월에 있을 Europe Cruise에 대해 다시 설명했고, 3월이 새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이므로 많은 참여를 독려하였다.2020년 2월 1일(토) Oakland Hill에 소재해 San Francisco Bay View가 아름답게 보이는 정순진 부회장의 집에서 38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정 부회장의 남편 박인철 씨가 색소폰 연주를 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있었다. 점심 식사 후 2월에 생일을 맞은 정 동창의 생일 축하 시간을 가졌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최혜영(생미 86)

부부 동반 크리스마스 파티

2019년 12월 13일(금) 정기 모임과 함께 부부 동반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회의 23년 역사 중 16년 동안 지회장을 맡아 수고해 준 정선주(성악 68) 이사가 2020년부터 북미주지회연합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동창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았다.

2020년 1월 15일(수) 최혜영 회장은 LA 지회 동창 선교부 기도회에 참석하여 선교부 사역을 참관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회에서도 동창들이 모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화의 설립 정신을 실현하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1월 29일(수) 진선미회 모임이 있었다. 이날 40년간 세인트루이스 재향 군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선재숙(의학 72) 동창이 참석하여 1월 8일(수) 있었던 명예로운 은퇴식 소식을 나누어 동창들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2월 28일(금) 진선미회에서는 유익하고 또 폭소가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진선미회 모임에 참석한 세인트루이스 지회 동창들

시드니 지회

회장__신은섭(법학 84)

축하와 격려의 시간

2월 8일(토) 토요일 오후, 시드니 West Ryde에서 이화 동창들이 새해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권영규(생명 75) 동창은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퍼펫페

새해 첫 모임에 참석한 시드지 지회 동창들

스티벌' 에 초청받아 참여했던 '해녀 퍼펫쇼' 무대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권 동창은 사라져 가는 한국 제주도의 해녀 문화에 대한 스토리를 외국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현지인들도 감명 깊게 감상했다는 인상적인 후기를 전했다. 또한 최미리(서양 91) 동창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전시회 'Namaste Nepal' 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멋진 기량을 펼치며 열심히 활동하는 시드니 동창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5월에 실시될 정기 동창 모임에서는 '알뜰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창들이 서로 필요한 물품을 함께 나누며 돈독하게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통한 수익금은 동창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기금으로 기부될 것이다.

시애틀 지회

회장__박명호(정외 78)

새 회장과 임원진 선출

2019년 12월 1일(일)에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명호 동창이 2020년 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현미경(국문 72)·이희진(약학 85) 동창, 총무에 박연희(섬예 89) 동창, 회계에 임지숙(교공 78) 동창, 서기에 성혜연(국문 02) 동창이 선출되었다. 정기총회 1부에는 지난해 10월에 성공적으로 치른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비롯해 2019년의 시애틀 지회의 활동들을 정리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해 힘써 준 모든 동창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저녁 식사와 함께 이어진 2부에서는 합창반 공연 및 퀴즈와 게임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20년 1월 11일(토)에 신년 첫 모임이 벨뷰 소재 상하이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새해 인사와 더불어 새 임원진들이 소개되었고,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전 임원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매년 이어져 오는 장학 사업으로 올해는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Ms. Valerie Cortes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모임 후에는 박명호 신임 회장의 집으로 가서 윷놀이와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월 14일(금)에 박명호 회장의 집에서 올해 첫 번째 음악 강의가 있었다. 'Music Journey to Vienna(빈으로의 음악 여행)' 를 주제로, 1부는 빈

윷놀이를 즐기고 있는 시애틀 지회 동창들

의 명소 소개, 2부는 빈 필하모니 소개와 함께 빈 필하모니 신년 음악회를 리뷰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날 음악 강의에 참여한 동창들이 입장료 및 기부금을 내주었다. 앞으로 두 번 남은 음악 강의에서도 입장료와 기부금을 받아 연말에 이곳 한인커뮤니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낼 예정이다.

싱가포르 지회

회장 _ 박진경(교공 91)

송년의 밤 행사로 한 해의 마무리

2019년 12월 6일(금) Tanglin Club에서 송년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송년의 밤 행사는 뷔페로 차려진 저녁식사 후에 회계보고, 소그룹 활동보고, 신입 동창 환영, 귀국 동창 환송과 함께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동창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년의 밤 드레스코드는 '개츠비 스타일'이었다. 모든 동창들이 의상 콘셉트에 걸맞게 영화배우 같은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여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위해 함께 모여 끈끈한 우정을 나누며, 가족 같은 동창의 정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싱가포르 지회 동창들

애틀랜타 지회

회장 _ 차희숙(체육 77)

새 회장 선출과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 수여

2019년 12월 8일(일) 둘루스에 위치한 소네스타 호텔 파티홀에서 부부 동반 연말 파티 '배꽃들의 향연' 모임에 동창과 가족 128명이 참석하였다. 2019년 북미주지회연합회 탤런트쇼에서 최우수 각본상을 수상한 소고춤 공연을 감상하고,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동창 간의 친목과 이화인의 긍지를 나누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2020년 1월 12일(일)에는 동창 48명이 서라벌에 모여 정기총회를 가졌다. 김미란(영문 80) 서기의 2019년 서기록 낭독과 구정원(체육 81) 회계의 2019년 회계 보고가 있었고, 새 회장에 차희숙 동창을 선출하였다. 부회장 김경원(가관 81) 동창, 총무 윤미영(피아노 84) 동창, 회계 최인옥(체육 87) 동창, 부회계 주성자(독문 89) 동창, 서기 이상경(심리 93) 동창, 친교부장 박귀련(무용 89)이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지난 2년간 회장으로 수고하였던 김영례(심리 79) 동창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2월 9일(일) 모임에는 38명의 동창이 참가했다. 2020년도 행사 계획을 발표하고 매월 더욱 발전되고 유익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부부 동반으로 '배꽃들의 향연' 모임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영국 지회

회장 _ 한진경(장미 92)

설날 모임과 옥스포드 대에서의 콘서트

1월 23일(목) 저녁 런던 근교 윔블던(Wimbledon)에 위치한 한식당 '요리(YORI)'에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동창 모임을 가졌다. 이융선(제약 73) 동창이 직접 연락하며 식사 메뉴와 자리 배치 등 여러모로 많은 수고를 하였다.

책임감 강하고 열성적인 한진경 회장과 홍시내(커미부 02) 총무가 2020년 동창수첩과 동창회보 그리고 참석자들의 이름표를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하며 도착하는 동창들을 맞이하였다. 동창들은 서로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빨간 동창수첩에 감격하며 잠시 추억에 젖어들기도 했다. 그 사이 한식 요리들이 테이블 위로 세팅이 되었고, 선교사로 활동 중인 박은경(유교 95) 동창의 식사 전 축복기도에 130여 년 전 낯선 한국 땅에 와서 단 한 명의 학생을 앞에 두고 여성 교육을 시작한 스크랜튼 여사의 숭고한 모교 설립의 정신을 잠시나마 묵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하고 있는 동창 일곱 명이 참석해서 새로운 영국 생활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음식, 짓궂은 날씨, 집 얻기 등 영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경험담도 들려 주며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박은지(국제학부 18) 동창은 모교 학보에서 영국에 관한 기사를 숙독하다 영국 지회를 발견하고, 런던 정경대(LSE)에 재학 중인 동창 다수를 입회시켰다고 한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동창들은 조각가, 예술가, 음악가, 사업가, 학생, 변호사, 교수, 회계사, 선교사 그리고 훌륭한 엄마 등등 활동 분야도 다양해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이화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나눌 수 있는 새해 모임이었다.

윔블던의 요리(YORI)에서 새해 모임을 즐기는 영국 지회 동창들

1월 30일(목) 전은배(종음 96) 동창의 오르간 독주회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있었다. 옥스포드 대학 명예교수인 정미령(교육 66) 동창의 주선으로 마련된 오르간 콘서트는 이화여대와 옥스포드대의 교류의 첫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전은배 동창의 오르간 연주회는 양 대학 동창들에게 흡족한 미소와 박수를 받으며 멋지게 끝났다. 전 동창은 옥스퍼드 대학으로부터 내년에도 와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오타와 지회

회장 _ 박진희(생명 88)

서로에게 힘이 되는 오타와 동창회

2019년 12월 1일(일) 박은경(장미 85) 동창의 집에서 송년 모임이 열려 동창과 동창 가족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큰 행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는 박은경 동창 덕분에 장소 섭외의 수고를 덜 수 있어 무척 감사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나 젊은 동창들과 남편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여 동창회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했으며, 아이들의 재롱과 웃음소리로 더없이 기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박은경 동창의 집에서 열린 오타와 지회의 송년회 모습

엄경자(약학 67) 동창의 기도 후에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각자 준비해 온 음식과 디저트로 테이블을 가득 채운 풍성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 황명희(영문 93) 동창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준비해 온 재미난 게임으로 모두들 신나게 웃을 수 있었다. 이연희(컴공 04) 동창이 집에서 직접 담근 막걸리와 청주는 남편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었다.

오타와는 10월 말부터 다음해 4월까지 내내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겨울의 한가운데 동창들이 모여 각자가 살아낸 한 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은 참 따뜻하고 감사한 일이다. 동창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 간의 사랑이, 친구와의 우정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힘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알고 지낸 시간의 길이와는 상관 없이 이화 동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맘을 터놓고 가까워질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2019년 한해를 보냈다.

워싱턴DC 지회

회장 _ 서혜경(정외 90)

동창 및 가족들과 함께 한 크리스마스 파티

2019년 12월 21일(토) Westwood Country Club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하였다. 총회를 통해 2019년 지회 활동을 돌아 보고, 새 지회장으로 선출된 서혜경(정외 90) 동창을 소개 · 인준하였다. 이상명(커미부 01) 문화부장의 진행으로 각종 게임과 준비된 순서들로 모두 한마음으로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창 자녀들의 〈Happy Birthday, Jesus〉 합창은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110여 명의 동창 및 가족이 참석한 파티는 'Lady in Red' 테마에 맞춰 멋지게 차려 입은 이화 동창들의 화려한 패션쇼로 막을 내렸다. 2020년 2월 8일(토) 워싱턴DC 지회 이사장 김정자(가정 62) 동창은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도실(영문 60) 동창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40여 명의 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동창회 활성화 지원,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후배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등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워싱턴DC 지회 동창들

토론토 지회

회장 _ 박현애(사회과교육 81)

영육이 풍성해지는 횃불회 모임

2020년 첫 횃불회가 따사로운 봄 햇살을 듬뿍 받은 2월 말의 토요일에 있었다. 대선배들부터 글로벌 인턴십으로 토론토에 와 있는 이수경(중문

이화 비빔밥 식사 시간과 예배 등으로 모임을 진행한 토론토 지회

재학) 후배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창들이 참여한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광야와 같이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우리 인생 중에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최경자(영문 63) 목사의 귀한 설교 말씀을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았다.

장형숙(통계 97) 동창이 준비한 즐거운 게임 시간은 동창들의 웃음과 활기로 더욱 아름답게 채워졌다. 이정준(가정 65) 동창의 식사 기도로 시작한 이화 비빔밥의 시간은 장소를 제공해 준 최인숙(영교 74) 동창의 진한 쇠고기 장국으로 풍미가 더 넘쳤다. 식사 후 황진숙(심리 01) 동창의 듣고 말하기의 기법 특강이 이어졌다. 황 동창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감정을 품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해 주었다. 어둑해진 초저녁 시간까지 계속된 이화 횃불회의 온기를 가득 담고 집을 향하는 발걸음이 참 행복한 날이었다.

파리 지회

회장__윤애영(서양 88)

미뤄진 송년모임을 겸하여 치른 새해 모임

1월 18일(토) 열린 송년 및 새해 설 모임은 파업으로 인해 불편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32명의 동창들이 발걸음을 해주었다. 식사 전에는 새로 수정한 재불 이화 동창회 주소록을 동창들에게 배포하였고, 이화 달력과 수첩 및 《이화동창》 소식지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 식사 후에는 2년 동안 일한 임원진 인사와 함께 2019년 업무 및 회계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동창들 간의 인사 및 소개와 노래방 및 간단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사은품 증정과 함께 오락시간을 마무리 한 후, 앞으로 2년 동안 동창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을 선발하고 새 임원진을 모집하였다. 여느 때처럼 동창들이 다같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고 교가를 부르며 정기 총회 모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다.

2월 11일(화), 파리 15구에 위치한 한식당 '만나'에서 원로 선배들과 함께 신년맞이 떡국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는 이병주(불문 62)·심승자(불문 68)·정은숙(불문 70)·황란서(융합보건 70)·변정원(불어교육 71)·오미자(불문 73)·윤영순(교공 73)·장옥희(심리 73)·박경애(불어교육 76)·송미영(불문 76)·함미연(불문 81)·홍성부(생미 84)·윤애영(서양 88)·박현선(의직 91)·박지은(가관 96)·유희숙(서양 99)·안정아(건축 06) 동창이 참석하였다. 지난달에 새로 선출한 신규 임원진을 원로 선배들에게 소개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먹

2020년 새해 모임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으며 따뜻한 담소로 이화인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포틀랜드 지회

회장 _ 김미진(도예 79)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으로 이야기꽃

2019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엄마를 대신하여 장소를 제공한 강정숙(기악 65) 동창의 딸 집에서 가졌다. 동창들은 각자 음식을 한 접시씩 가져와서, 서로의 훌륭한 음식 솜씨들을 칭찬하며 많은 음식에 허리단을 풀어야만 한다고 웃었다.

시애틀에서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다녀온 회장 외 다섯 명 동창들의 총회 참석 보고가 있었다.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창들을 위해 총회 풍경을 열심히 촬영해 온 회장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모교 총장 소개도 빼놓지 않았다.

모임에 처음 참여한 조은희(무용 72) 동창을 환영하며 자기 소개를 시작한 동창들은 인생 상담 혹은 간증 시간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집에서 만나니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동창회가 되었다고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집에서 만나자고 동창들은 입을 모았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던 동창들은 저녁이 되어 서둘러 자리를 일어났다. 한나리(체육 92) 동창이 2020년 새해엔 떡국을 해주겠다고 하여 모두들 어린아이들같이 행복해하며 헤어졌다.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잘 먹고 환담을 나누느라 새 회장 선출 시간을 놓쳐서 자연스레 기존 회장이 연임을 하게 된 에피소드를 남기었다.

집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모임을 나눈 포틀랜드 지회 동창들

필라델피아

회장 _ 박윤옥(간호 75)

궂은 날씨에도 풍성한 동창회

2019년 12월 모임은 예년과 같이 블루벨 소재 Lai Lai 중식당에서 가졌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3명의 동창들이 모여 풍성한 동창회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델피아 항구에 들어오는 선박의 선원들을 위해 사역하는 김영미(영문 87) 동창의 남편 이병은 목사의 해양선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혀 다른 세계의 선원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선교비로 500달러를 전달했다. 한편 어렵게 임신한 쌍둥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이화 동창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투병 중인 동창의 재발 방지와 귀한 두 자녀 잘 양육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주십사고 여러 동창들이 중보기도

동창 모임에서 선교비를 전달한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를 하고 있다. 2월 모임은 늘 모이는 필라델피아 두부식당에서 10명의 동창들이 모여 맛난 점심을 먹었다. 김영애(국문 62) 동창이 붕어빵과 커피를 대접해서 먹고 마시며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히 하였다.

홍콩 지회

회장__최명성(교공 76)

홍콩과 심천의 동창들이 한자리에

1월 16일(목) 홍콩의 스포츠 클럽 중식당에서 최명성 회장의 신년맞이 점심 초대로 모임이 이루어졌다. 심천 지회 동창들을 초대해서 홍콩과 심천의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모임에서 한유미(융합보건 90) 동창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홍콩 지회 회장단에 활력이 될 전망이다.

신년맞이 점심 모임에 심천 지회 동창들을 초대한 홍콩 지회

휴스턴 지회

회장__구희경(사생 86)

지역 한인 어르신께 설 음식 대접

2019년 12월 13일(목) Sugar Creek Country Club House에서 크리스마스 모임을 가졌다. 평상시에 자주 나오지 못하던 선배들도 곱게 단장하고 나온 모습에 반가움과 감사함에 콧등이 시큰했다. 또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하여 도울 일을 찾는 후배들의 씩씩한 모습이 든든하고 사랑스러웠다.

동창들이 지회의 장학 활동, 봉사, 운영 등에 관심을 갖고 도와준 결과 2018-2019년 회기 말에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국제재단 휴스턴 지회 기존 구좌에 더할 수 있었다. '휴스턴 지회 장학금' 을 받는 모교 후배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기 바란다. 2020년 1월 24일(금), 휴스턴 지역 한인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을 하는 '구정 대잔치' 로 새해 동창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 소중한 행사를 시작한 선배들, 또한 23년간 꾸준히 맥을 이어온 선후배 동창들의 열정과 진정성이 빛을 발하는 행사였다. 새벽부터 일어나 뜨끈뜨끈한 음식을 만들어 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즐겁게 봉사해 준 동창들, 정성스런 후원금을 낸 동창들,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거나 여러 방법으로 참여하여 도와준 동창들 덕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 매년 어르신들과 만나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함께하다 보니 설날 즈음이면 어르신들께서도 휴스턴 지회 동창들을 기다리고 다음해에도 만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신다. 수고와 고단함이 보람으로 바뀌는 날이었다.

지역 한인 어르신들께 설 음식을 대접한 휴스턴 지회 동창들

동창근황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문용자(의학 62) 동창

문용자 동창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명예 이사장 문용자 동창이 2월 10일(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사무실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 최룡호 부총장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문 동창은 2007년부터 5년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에서 (재)그린닥트 공동대표로 진료하고, 2015년부터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이사장으로 평양과학기술대를 후원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정형(약학 63) 동창

이정형 동창

2019년 12월 1일(일) 미국 시애틀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 시작 전에 이정형 동창의 팔순 기념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창들이 감상평을 적어 이 동창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가졌다.

홍경자(법학 65) 동창

홍경자 동창

1월 30일(목) 열린 서울 YWCA 제 98회 정기총회에서 자원지도자 40년 봉사상을 받았다.

장수자(기독 66) 동창

장수자 동창

1월 30일(목) 열린 서울 YWCA 제 98회 정기 총회에서 자원지도자 30년 봉사상을 받았다. 장수자 동창은 30년 가까이 서울 YWCA 홍보출판위원으로 회보 발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장 동창은 걸스카우트 지도자로 한국 걸스카우트 창립 73주년을 맞이하여 연공 40년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중근(영문 67)·임정희(가관 79) 동창

다문화 학생들과 비(非) 다문화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다문화 인식 개선을 돕기 위한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 캠프를 모교에서 1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3박 4일로 진행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허들링청소년합창축제(추진위원회장 유중근)는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이사장 임정희)과 이화여자대학교가 주관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려아연㈜과 ㈜호반건설이 후원·협찬하였다.

유중근 동창

임정희 동창

선재숙(의학 72) 동창

선재숙 동창

선재숙 동창이 1월 8일(수) 세인트루이스 재향 군인병원에서 은퇴하였다.
재향 군인병원에서는 선 동창의 탁월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1월 8일을 '선재숙 박사의 날'로 지정하고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게양하고, 병원에서 일했던 40년의 사진과 기록을 모은 『선재숙 박사의 역사』 앨범을 증정하며 영예로운 은퇴식을 해주었다.

김효정(서양 77)·조기주(서양 79)·김미옥(서양 84)·백다임(서양 86)·김현희(서양 88)·김영지(서양 89)·조강신(서양 90)·박형주(서양 91)·김효선(서양 92)·정선주(서양 94)·주영신(서양 96)·이고운(서양 02) 동창

'2019 채림(彩林)전'이 갤러리 내일에서 2019년 12월 20일(금)부터 26일(목)까지 열렸다. 이화여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들로 구성된 회화 그룹 '채림'은 그동안 39회의 전시를 통해 다양한 연령과 작가의 고유성에 기반한 풍부한 회화의 스펙트럼을 보여 줬다.

장영란(섬유 77) 동창

장영란 동창

2019년 12월 7일(토)부터 14일(토)까지 예술의전당 1층 제1전시실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다'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하였다. 장영란 동창의 개인 현대 자수 작품 75점과 함께 장 동창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전통 자수 소장 작품 350점을 전시하였다. 또한 장 동창은 수원대학교 공예디자인과 정년 퇴임을 기념하며 직접 수집하고 소장한 전통 자수를 담은 작품집 『Embroidery』와 장 동창의 현대 자수 작품을 담은 작품집 『The Breath of Nature in Embroidery』을 출간하였다.

서정숙(생미 79) 동창

서정숙 동창

2월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LA에 위치한 갤러리 두아르떼에서 열린 2020 신년 기획 초대전에 참여하였다. 캘리포니아 남부 미술협회의 중진 회원 작가들과 젊은 작가 등 총 21명의 현역 작가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였다.

신정순(국문 79) 동창

소설가 신정순 동창이 제9회 고원문학상을 받았다. 선정됐다. 수상작은 소설 『드림랜드』.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신정순 동창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 경희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고원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문학상의 시상식은

'보건교육콜로키움 장학금' 수혜자로 김지은(융합보건 11) 동창 선정

보건교육콜로키움(회장 김명·융합보건 74)은 2019년 7월 20일(토) 장학위원회를 열고 '보건교육콜로키움 장학금' 수혜자로 김지은(융합보건 11) 동창을 선정하였다. 김지은 동창은 2019학년도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국제보건전공)에 입학하여 공부 중이다. '보건교육콜로키움 장학금'은 차세대 보건교육전문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이번에 네 번째 수혜자를 선정하였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장학위원회 회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7일(토)에 진행되었다.

보건교육콜로키움은 모교 융합보건학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보건교육 전문가 단체로, 2003년 한국인의 건강행태연구회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출판·장학금 모금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1월 18일(토) 오후 6시 미국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중식당 '신북경'에서 열렸다.

김은미(사회 81) 동창

김은미 동창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은미 동창의 연구팀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한국 글로벌 보건 전략(Korea Global Health Strategy)'을 주제로 한 연구 과제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45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 동창은 2013년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연구비를 받은 후 3회 연속 연구비를 유치했다.

윤혜미(영문 81) 동창

윤혜미 동창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윤혜미 동창이 아동권리보장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윤 동창은 1990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사, 한국아동복지학회 학회장, 동국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아동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왔다. 윤혜미 동창은 이날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최영주(수학 82) 동창

최영주 동창

포스텍 교수로 재직 중인 최영주 동창이 최근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출판사와 손잡고 수학 전공서를 잇달아 발간했다.

수학 이론을 연구하는 대학원생·연구자를 위한 두 권의 전공서는 『준-보형형식과 유사-미분작용소(Jacobi-Like Forms, Pseudodifferential Operators, and Quasimodular Forms)』와 『부호와 보형형식(Codes and Modular Forms A Dictionary)』으로, 보형형식 이론의 응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박은라(동양 84) 동창

박은라 동창

박은라 동창의 오픈 초대전이 2019년 11월 20일(수)부터 12월 31일(월)까지 '민들레 홀씨 되어 날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서초구 서초동 '더콘서트'에서 열렸다. 박 동창은 생명의 강인함과 인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 바람과 한 몸이 되어 사랑의 씨를 낳는 민들레의 특성을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삶의 여운을 깊이 있게 묘사하였다.

박미숙(정외 85) 동창

박미숙 동창

박미숙 동창이 1월 2일(목) 공공외교 전문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산하 아세안문화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1994년 KF에 몸을 담은 그는 인사·총무부장, 미디어사업부장, 경영기획실장 등을 거쳐 제2대 아세안문화원 원장에 선임됐다.

박신정(조소 85) 동창

박신정 동창

2월 조소과 동창회와 이화조각회의 18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박신정 동창은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에 이어 최근 영월 관광지 젊은달 와이파크(하슬라 아트월드 영월 박물관)를 오픈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인옥(서양 85) 동창

박인옥 동창

2월 5일(수)부터 10일(월)까지 인사아트 제2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남연숙(도예 86) 동창

남연숙 동창

Urban sketchers Guam(USK), 1st Year Anniversary 1월에 미국령 괌 아갓에 위치한 마리나 베이 그릴에서 Sketch와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3월 한 달 동안 투몬 소재 아웃리거 괌 비치 리조트에서 열린 차모로 아티스트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Isla Center에서 'Building Strength & Sovereignty in the Pacific' 전을 열었다.

윤 경(서양 86) 동창

윤경 동창

2019년 12월 8일(일)부터 2020년 2월 5일(수)까지 순복음중동교회 해피타임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박종애(물리 87) 동창

박종애 동창

박종애 동창이 랩장으로 있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모바일 헬스케어랩 연구진은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Science Advances)》에 새로운 혈당 측정법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은 당뇨병의 '30년 난제'로 불리는 비(非) 침습 혈당 측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천선미(사복 88) 동창

천선미 동창

전라북도 노인장애인과 과장 천선미 동창이 고창 부군수로 발령받았다. 이로써 천 동창은 '전북 최초의 여성 부군수'라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천선미 신임 고창 부군수는 전북지역 노인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노인장애인 과장으로 일하면서 전북 노인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선영(조소 89) 동창

김선영 동창

1월 1일(수)부터 2월 27일(목)까지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 아트팔래스 갤러리에서

'2017 올해의 이화인' 뜻을 모으다

'코로나 19' 최전선에서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업무에 임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2017 올해의 이화인'(회장 우숙영·피아노 87) 일동이 의료진들이 지치지 말고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메디폼 500개를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의료 용품은 그간 모아 두었던 '행복기금'으로 구매하였다. 자신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적금식으로 모아 두었던 '행복기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나눠 주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어 훈훈한 미담으로 남게 되었다. 졸업 30년이 되는 해에 각 과에서 한 명씩 추대되는 올해의 이화인들의 행보가 아름답다.

'VESSEL-몸' 전시를 하였다.

김수정(생미 89) 동창

김수정 동창

2월 8일(토)부터 22일(토)까지 헬로우뮤지움 내 갤러리 참외에서 개인전 'Dispattern in Pattern'을 개최하였다. 김수정 동창은 전시를 통해, 쪼개진 시간들 사이에 나타나는 형상과 비워진 공간들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김 동창은 현재 모교 시각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서영(피아노 89) 동창

박서영 동창

2월 20일(목)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하여 베토벤과 슈만의 곡 및 크로포드, 마르티노의 국내 초연곡들을 연주하였다. 박서영 동창은 현재 영은미술관 음악감독, 앙상블 혜 코리아 부감독, 서울튜티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영지(서양 89) 동창

박영지 동창

2월 5일(수)부터 16일(일)까지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팔레드서울 갤러리에서 초대전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미선(과교 89) 동창

이미선 동창

광주지방기상청 제24대 청장에 이미선 동창이 취임하였다. 이 동창은 1992년 기상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예보상황과장·예보총괄관,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이보경(동양 89) 동창

이보경 동창

'Freezing a Moment- 느끼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2월 19일(수)부터 25일(화)까지 북촌로 9길 〈Space D9〉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번 개인전에서 이보경 동창은 매 순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탄생시키는 행위를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성을 디지털 작업으로 표현했다.

조정열(사회 89) 동창

조정열 동창

조정열 동창이 3월 19일(목) 열린 에이블씨엔씨 이사회에서 에이블씨엔씨 총괄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되었다. 한독의 첫 여성 대표이사로 일했던 조 동창은 유니레버 코리아와 로레알 코레아를 거치고, 다국적 제약사 MSD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 마케팅 상무를 지냈다. 이후 한국 피자헛 마케팅 전무, 카세어링 업체 쏘가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희은(무용 90) 동창

김희은 동창

부산 동의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희은 동창이 부산 동의대 예술디자인체육대학교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김 동창은 부산예술대학에서 10년간 후학을 지도하다가 동의대로 이적한 지 10여 년째이다.

노정연(법학 90) 동창

노정연 동창

제67대 신임 전주지검장으로 노정연 동창이 임명됐다. 지난해 '검찰의 꽃' 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으로 여성으로는 세 번째 임명

된 노 동창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조주은(사학 90) 동창

조주은 동창이 경찰청 첫 여성안전기획관으로 임명되었다. 조 동창은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으로 약 10년간 활동했다. 이후 여성가족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2019년 9월까지 일했다.

조주은 동창

황진선(경영 90) 동창

황진선 동창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제조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 대표로 부임하였다. 황 동창은 한국P&G 고객마케팅담당 이

황진선 동창

각 기업 인사 발령에 이화 동창 약진

2020년 발표된 각 기업의 인사 발령에서 40대·여성의 약진이 눈에 띈다. 그 중심에 이화가 있다. 2019년 12월 3일(화) 발표된 GS그룹 2020년 임원 인사에서는 윤선미(법학 95) 동창이 GS홈쇼핑의 콘텐츠사업본부장(상무)으로 승진해 사업부를 담당하게 됐다.

12월 27일(화) 현대차그룹이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신규 여성 임원 3인이 모두 모교 출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제네시스고객경험실장 이형아(사학 93) 동창, 현대차 지역전략팀장 이인아(법학 96) 동창, 현대·기아차 인재개발1실장 송미영(교공 99) 동창이 각각 상무로 승진했다.

2020년 1월 20일(월) 발표된 삼성전자 정기 임원 인사에서 글로벌PM그룹 그룹장 송명주(과교 92) 동창이 전무로 승진하여 대졸 여성 공채 후배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생활가전사업부 UX혁신그룹장 임경애(장미 97) 동창과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광고서비스그룹장 이귀호(문정 98) 동창은 상무로 승진하였다.

1월 21일(화) 발표된 제일기획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비즈니스 14팀장 권현정(사회 95) 동창이 상무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임원으로 승진했다.

1월 22일(수) 발표된 삼성증권 2020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SNI본부장 박경희(영문 90) 동창이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전무로 승진하며, 삼성증권 역대 두 번째 여성 전무 타이틀을 달았다.

같은 날 발표된 삼성카드 정기 임원 인사에서는 마케팅실 BDA센터 커스터머저니(Customer Journey)TF장 조은경(통계 94) 동창이 상무로 승진하며 유일한 여성 신임 임원을 기록했다.

윤선미 동창 이형아 동창 이인아 동창 송미영 동창

송명주 동창 임경애 동창 이귀호 동창 박경희 동창

사, 일본P&G 글로벌 고객담당 리더, 제일모직 패션부문 영업전략담당 상무와 화장품 제조사 제닉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나경(독문 91) 동창

이나경 동창

이나경 동창이 1월 1일(수)부터 서초구청 구청장실에 근무하게 되었다. 이 동창은 2017년 모교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공공정책 문화예술행정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다. 현재 서초구청 근무로 잠시 휴학 중이다.

손지영(약학 91) 동창

손지영 동창

호주 제약사 씨에스엘베링(CSLBehring)의 한국지사 초대 지사장으로 손지영 동창이 선임되었다. 손 동창은 1999년 화이자에 입사한 이후 총괄 마케팅 매니저를 맡았고 이후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을 역임하였다.

심정원(사복 92) 동창

심정원 동창

성산사회복지관 관장 심정원 동창이 3월 4일(수) 제14대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에 취임하였다. 서울시 산하 2만 명 사회복지사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심정원 동창의 임기는 3년이다. 심 동창은 전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직과 이사직을 동시에 맡게 되며 서울시 산하의 사회복지사를 대표하게 된다.

정혜경(의학 92) 동창

정혜경 동창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혜경 동창이 최근 개최된 제3차 소화기연관학회 국제학술대회(KDDW 2019)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정 동창의 이번 연구는 전국적으로 지역적 대표성과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3차 의료기관에서 13년간 총 6,354명의 식도암 임상결과를 집대성한 자료로서, 식도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국내 현황 파악과 식도암 치료 성과를 고찰했다.

이희준(약학 92) 동창

이희준 동창

이희준 동창 극본의 뮤지컬 다수가 무대에 올랐다. 〈최후진술〉이 3월 13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2관에서 공연 중이며, 〈마마, 돈크라이〉의 초연 10주년 기념 공연이 3월 27일(금)부터 5월 17일(일)까지 두산아트 연강홀에서 열린다. 한편 4월 5일(일)부터 6월 14일(일)까지 드림아트센터 2관에서 〈알렉산더〉가 공연된다.

백 진(도예 93) 동창

백진 동창

2019년 12월 13일(금)부터 2020년 3월 22일(일)까지 아라리오뮤지엄 인 스페이스 기획전시로 언더그라운드 인 스페이스에서 도자 설치 작가 백진 동창이 개인전 '파편(Fragment)'을 개최하였다.

유승현(융합보건 94) 동창

유승현 동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유승현 동창이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교육부문)'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서울대학교는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 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를 선정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김혜정(유교 96) 동창

김혜정 동창

2월 17일(월)자로 실시된 법제처 인사에서 법제처 여성 공무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조직관리·혁신을 담당하는 혁신행정 감사담당관에 김혜정 동창이 발탁됐다. 김 동창은 2003년 법제처에 발령받은 이후 법제지원국 법제관, 행정법제국 법제관 등을 거치며 법령심사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박효진(조소 98) 동창

박효진 동창

2월 5일(수)부터 3월 7일(토)까지 아틀리에 아키에서 개인전 'Night Garden'을 개최하였다.

윤영경(동양 99) 동창

윤영경 동창

동양화가 윤영경 동창의 15번째 개인전 '비욘드(Beyond)'가 1월 30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경기 경기 과천시 스페이스K에서 열렸다. 윤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 일상의 풍경을 담아낸 한지 평면 작업과 삼베를 이용한 설치 작업 등 14점의 신작을 선보였다.

김건하(의학 04) 동창

김건하 동창

이대목동병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건하 동창이 대한노인신경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동창은 '슈퍼에이저(SuperAger)의 생활 습관 및 뇌 네트워크 특징 규명'이라는 연구를 통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동창은 현재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 이대목동병원 로봇인지치료센터장도 맡고 있다.

박정자(커미부 04) 동창

박정자 동창

배우 박정자 동창이 자신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는 무대 〈노래처럼 말해줘〉를 2월 6일(목)부터 16일(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음악과 영상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연기 인생 60년을 연대기로 꾸며 선보였다. 또한 3월 19일(목) 관악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다. 박 동창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이며 2007년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정재선(섬예 04) 동창

정재선 동창

정재선 동창이 2월 4일(화)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패션대상'에서 신진 디자이너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정 동창은 2016년 패션 브랜드 '제이청(J.CHUNG)'을 론칭하였다.

김경주(생미 05) 동창

김경주 동창

2월 18일(화)부터 25일(화)까지 L'espace 71에서 '환경설정, 형상의 바깥' 전을 열었다. 김경주 동창은 이번 전시에서는 결과의 이면, 즉 형상의 바깥에 주목하였다. 전시 작품은 유무형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프로세스 도중 발생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다.

김지원(심리 05) 동창

김지원 동창

김지원 동창이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와 유아동복기업 한세드림의 대표로 선임되어 1월 1일(수) 취임식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공식 부임하였다. 김 동창은 2008년 예스24에 입사한 후 한세엠케이, 한세드림에서 총괄 임원을 역임했다. 2017년 한세엠케이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을 거친 뒤 2019년 2월 전무로 승진했다.

이윤정(생미 06) 동창

이윤정 동창

1월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헬로우뮤지움에서 상상놀이터 전을 열었다. 이윤정 동창은 놀이터라는 장소성에 주목하고 놀이터의 정서적·상징적인 의미를 작품에 녹여 내었다.

최지원(무용 08) 동창

최지원 동창

유니버설발레단 솔리스트 최지원 동창이 제24회 한국발레협회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프리마 발레리나' 상을 수상하였다. 한국발레협회상은 한국발레협회에서 1996년 제정한 상이다. 최지원 동창은 선화예중·고와 모교를 졸업한 뒤 2009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해 '지젤'에서 지젤 역을, '호두까기인형'에서 클라라 역을 맡는 등 주요 역할을 섭렵했다.

성주희(영문 10) 동창

성주희 동창

성주희 동창이 운영하는 더클로젯컴퍼니의 '클로젯셰어'가 1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정식 서비스를 론칭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문을 열었다. 패션 공유 플랫폼 '클로젯셰어'는 현재 1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만 5,000개의 옷들을 공유와 구독을 통해 회원들이 이용 중이다.

유재연(서양 11) 동창

2019년 11월 13일(수)부터 12월 18일(수)까지 도잉아트에서 개인전 'I" Eclipse'를 열었다. 전시는 드로잉에 기반하는 평면 회화와 전시공간의 벽, 바닥, 천장 등에 설치되는 조각회화(piece-painting) 시리즈와 네온 드로잉, 그리고 움직이는 설치 작업 등으로 구성했다.

진희란(동양 13) 동창

진희란 동창

진희란 동창이 2월 3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대문구 아트레온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 초대전을 열었다. 진 동창은 산과 들로 나가 직접 보고 느낀 대로 표현하는 진경산수를 그려내는 젊고 심지 있는 작가이다.

김은지(식영 20) 동창

김은지 동창

제43회 영양사 국가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김은지 동창은 220점 만점에 212점을 취득했다.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분 중,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 E-mail : ewhaalum@ewha.ac.kr

동창이 펴낸 새 책

인생의 건반을 두드리다

안희숙(음악 54)
안희숙 지음 / 서고

피아니스트이자 연세대 명예교수인 안희숙 동창이 회고록 『인생의 건반을 두드리다』를 출간하였다. 예술가로서의 삶, 교육자로서의 삶을 풀어내는 중에 20세기 격동하는 한국의 근현대사가 녹아나 있는 책이다. 예술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그 속에서 연주자는 쉼 없이 노력하되 겸손해야 한다고 안 동창은 말하고 있다.

무지개 사라진 자리

김영강(이영강·국문 66)
김영강 지음 / 해드림출판사

소설가 김영강 동창이 소설집 『무지개 사라진 자리』를 출간하였다. 총 8편의 단편이 실린 이 책은 가족 또는 부부를 소재로 한 휴머니즘이 배경이다. 김동창은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 소설 신인상, 에피포도문학상 소설 금상, 해외문학상 소설 대상, 고원문학상(장편소설)을 수상하였다.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소설가협회 회원이며, 미주가톨릭문학 편집장을 맡고 있고, 계간미주문학 편집장, 이화여대 남가주동창회보 편집장을 역임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방봉세(체육 51)
방봉세 지음 / 도서출판 영성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방봉세 동창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바치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역경에 처한 모든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엄마의 바다

송홍자(국문 65)
송홍자 지음 / 출판 하다

이 책은 우리 부모 세대로 살고 있는 평범한 한 어머니의 삶의 기록이자, 개인사적으로는 결코 평범치 않은, 태평양을 오가며 70 평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뜨거운 노래이다. 수필가이자 시인인 송홍자 동창은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아프고 괴로웠던 그 시절을 낮지만 깊은 울림을 담아 우리에게 들려준다. 때로는 아련하고 그리운 추억이 담긴 삶의 파노라마를 50여 개의 에피소드에 담아내었다.

이진영의 통역번역기초사전

이진영(불문 79)
이진영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오랫동안 전문 통역사와 번역자로 활동해온 이진영 동창이 그간 축적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시사 개념들과 용어들을 정리한 한영 시사용어 사전을 출간했다. 사회·문화·종교·행정·사법·국제 정치·경제 등 총 24개의 주제로 나누어 핵심 어휘를 선정·수록했다. 시사용어와 더불어 각 분야의 기초 개념까지 따로 설명하여, 더욱 충실한 기초시사사전의 기능까지 겸하도록 했다.

라인강의 돛단배

유한나(최소은 · 독문 81)
유한나 지음 / 선우미디어

시인이자 수필가인 유한나 동창이 세 번째 시집 『라인강의 돛단배』를 출간하였다. 1부 「시간의 강물 타고」, 2부 「나뭇잎의 말」, 3부 「그런 네가 보고 싶구나」, 4부 「네 작은 눈 들어」로 나누어진 이 시집에는 59편의 시가 실려 있다. 유 동창은 재유럽 동포들의 문학 창작 작품을 싣고 있는 《유럽한인문학》 편집인 및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문화회관 글쓰기 반 강사이기도 하다.

중화미각

송진영(중문 90)·김지선(중문 91)·송정화(중문 92)·최진아(중문 94)·문현선(중문 95)·정민경(대학원 98)
김민호 외 지음/ 문학동네

한국중국소설학회에서 활동하는 인문학자 19명이 중국 역사와 문학 속 스무 가지 음식 이야기를 들려준다. 중화요릿집 차림표처럼 친근하게 구성된 책은 새콤한 전채, 기름진 생선과 고기 요리, 그리고 든든한 식사와 개운한 후식으로 이어진다. 자장면에서 훠궈까지, 역사와 문화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책이다.

클래식이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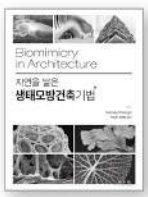
안인모(피아노 97)
안인모 지음 / 위즈덤하우스

팟캐스트 음악 분야 1위 〈클래식이 알고 싶다〉의 방송 2주년을 맞아 첫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피아니스트 안인모 동창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을 옆집 언니가 들려주듯 감성 가득한 표현과 전달력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낭만주의 시대는 문학과 자유롭게 결합하며, 살롱에 모여 자유롭게 몽상을 노래한 시대이다. 이 책에서 들려주는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클래식 취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연을 닮은 생태모방건축기법

박자은(장미 00)
마이클 폴린 지음 / 박자은·정재욱 옮김 / 광문각

박자은 동창이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 마이클 폴린은 생물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생물을 모방한 중요 건축물 사례들을 보여준다. 건축가, 도시 설계자, 제품 디자이너들을 위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사례 연구들도 포함되어 있다.



마음이 하찮니

조민영(영문 00)
조민영 지음 / 청림Life

『마음이 하찮니』는 누구나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존감이라는 발판 위에 건강하게 서는 법을 일러준다. 조민영 동창은 그림책, 희곡, 카드, 글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독서 치유 수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박찬효(국문 02)
박찬효 지음 / 책과함께

박찬효 동창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각된 '여성혐오'가 한국의 가족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신문 기사, 소설,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에 등장하는 형상화된 여성/여성 집단의 이미지를 통해 각 시기에 추구된 가족 이데올로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VIP 당신의 예정된 행복을 향한 S.Noble

에스노블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결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드립니다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대한민국 3%를 위한 결혼정보클럽 S.Noble

S Noble

에스노블은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합니다
두 대통령가의 성혼을 이루어낸 22년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으로
당신의 예정된 행복에 에스노블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89

S Noble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 패밀리빌딩 2F http://www.snoble.com//

예술과 자연이 숨 쉬는 곳

HASLLA

하슬라아트월드
젊은달와이파크

CNN 사진찍기 좋은곳 선정

한국관광공사, 문체부 선정

하슬라아트월드 -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선

젊은달와이파크 - 올 겨울 숨은 관광지